

NO.754
2015.10.19
~2015.10.25
www.univ20.com

Weekly Choice

사랑한다면 음원깡패처럼

깡패는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

INTERVIEW

축구해설위원 박문성
우직하게 판 축구라는 한 우물
내공이라는 것이 폭발했다

ISSUE

인무너스 워
불길 치솟는 취업전쟁 속
문과생의 고군분투기

GEEK

연지출판사 민희진
'그냥 한번' 펴낸 책이
벌써 10권째



대학생 신용 STARTUP 캠페인

330만 대학생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응원합니다!

체크카드를
이용 중이라면?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스마트한 대학생들의 필수 Check 사항!

- ☑ 카드 이용내역 한번에 확인
- ☑ 학자금 대출 내역 관리
- ☑ 학자금 대출 연체 방지
- ☑ 내 신용등급 확인
- ☑ 내 명의 보호
(군입대, 어학연수 등 장기 부재 시
명의 도움을 통한 금융사기 사전 차단)

1. 대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용관리

• 학자금 대출 관리, 체크카드 이용금액 등 내 금융거래 내역을 한번에 스마트하게 관리하세요.

* 신용관리는 경제인의 필수요소이며, 신용확인만 금융활동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내 신용등급



내 카드정보



내 대출정보



신용변동알람

무료 혜택 바로받기

- ① QR 코드 접속
- ② 공식 사이트 연결



2. 대학생 신용 아카데미

- 금융권 취업을 위한 고급 금융/신용 전문가 교육
- 온라인 금융 및 신용 교육
- 전국 순회 대학교 신용 교육

3. 대학생 신용 서포터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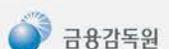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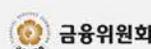
- 대학생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한 8주간의 맞춤 체험
- 신청 대상 : 대학생이면 누구나
- 모집 기간 : 10월 29일 ~ 11월 26일
- 활동 혜택 - 소정의 활동비 / 우수자 대상 장학금 지급
- 금융권 인턴십 기회 제공 / 채용 시 가점 부여

* 캠페인 공식 사이트 (Studentcredit.or.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주최



후원





어서 와~ 이런 공모전은 처음이지?
**대중교통에 관한 특특 튀는 아이디어 내고,
 2천만원 상당 상금까지 도전해봐!**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이 준비한 초특급 공모전,
“사업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을 소개할게!

버스 타고 학교 가고 집에 오고, 지하철 타고 친구를 만나고,
 여행도 가고... 우리에게 '대중교통'이란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여기! 대중교통과 관련한 아주 특별한 공모전이 개최된다는 소식이 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이나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총2,000만원 상당의 뽐뽐한 상금도 걸려 있는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사업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에 주목해보자!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의
 사업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은...**

이번 공모전은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의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재단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되돌려주시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중교통 발전과 시민의 이용 편의를 증대시키는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할 수 있다.

**매일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다양하게 고민해보자!**

공모전 주제는 대중교통 발전과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가 해당된다.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에서부터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안전교육, 대중교통 종사자 복지 등 재단 사업에 적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주저 말고 지원해보자.

**총 2,000만원 상당의 혜택
 상금도 받고 Tmoney도 받고!**

수상자에게는 총 2,000만원 상당의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대상(1명) 수상자에게는 300만원 상금과 함께 Tmoney 200만원, 최우수상(3명)은 각 200만원 상금과 Tmoney 100만원, 우수상(6명)은 각 50만원 상금 및 Tmoney 50만원이 주어진다. 우수아이디어는 재단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해보고 싶어?
 드루와 드루와!**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전 지원은 스마트교통복지재단 홈페이지(www.stwfoundation.or.kr)에서 지원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응모대상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주제

대중교통 발전과 이용 시민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

-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등 교통약자 및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아이디어
-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 교통카드 활성화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아이디어
- 대중교통 이용 시민 편의 제고 아이디어
- 대중교통 이용 홍보 및 대중교통 안전교육 아이디어
- 대중교통 관련 종사자를 위한 복지 아이디어

세부 일정

접수기간 : 2015. 10. 16(금) ~ 11.16(월)
 당선작 심사 : 2015. 11.
 당선작 발표 : 2015. 12. 2(수)
 시상식 : 2015. 12. 9(수)

접수 방법

스마트교통복지재단 홈페이지
 (www.stwfoundation.or.kr)에서 온라인 접수

심사 기준

사업 타당성, 공공성, 실현가능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함

시상 내역

구분	시상인원	상금 및 부상
대상	1명	300만원 및 Tmoney 200만원
최우수상	3명	각 200만원 및 Tmoney 100만원
우수상	6명	각 50만원 및 Tmoney 50만원

문의

공모전 운영사무국
 E-mail : stwfoundation@naver.com
 Tel : 02-6370-3321

Tmoney 스마트 교통복지재단 소개

이번 공모전을 주최하는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은 교통 발전 및 교통카드 이용 촉진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편의 증대 및 사회적 교통약자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된 복지재단이다. 모든 재단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재단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교통복지재단 홈페이지(www.stwfoundatio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eekly

Editor 이민석 min@univ.me
Photographer 김재운 Ultra Studio
Hair & Makeup 이슬

Cover

Weekly

interview

전가영

경희대 무용학 13



Model

MEPSI MAKER 2기모집

- 2015.10.27

글로벌넘버원
뷰티 플랫폼
맵시 메이커

맵시메이커?



K-beauty 트렌드를
모두 섭렵하고 있는
뷰티 트렌드 리더



뷰티 블로거가
되고 싶은
예비 크리에이터



중국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넘치는
글로벌 인재

모집대상

- 뷰티와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한국 거주자

활동기간

- 2015년 11월 ~ 2016년 3월 / 5개월

주요활동

-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뷰티 콘텐츠 제작 기초 학습
- 다양한 제품으로 중국인 대상 K-Beauty 소개
- 중국향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훈련
- 테마 데이, 영상 촬영 등 캐주얼 활동
- K-style & K-culture 홍보 콘텐츠 기획

활동혜택

- 우수 활동자 인턴십 및 맵시 아이콘 지원 기회 제공
- 월별 활동비 지원 및 기프트박스 제공
- 콘텐츠 및 중국 트렌드 정기 교육
- 스튜디오 촬영 기회 제공

지원방법

- MEPSI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 및 미션 제출



mepsi.kr

모집일정

서류제출	서류발표	면접전형	최종발표
2015.10.12 (월) ~10.27 (화) *오전 9시까지	2015.10.28 (수) *서류 합격자 개별연락	2015.10.29 (목) ~ 11.03 (화)	2015.11.04 (수)

활동일정

- 발대식 2015.11.06 (금)
- 정기모임 매달 마지막 목요일 (일정변경 가능)
*발대식 불참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활동 관련 문의 | contact@mepsi.kr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실제 성격이 궁금하다.

잘 웃고 말괄량이 기질이 있지만, 눈물도 많고 소심해서 사소한 걱정을 많이 한다. 친해지게 되면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주워 사람들에게 호감을 잘 산다. 그렇지만 안 친한 상태에서는 조금 딱딱하고 냉정하기 때문에 다가가기 어렵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요즘 머릿속에 있는 가장 큰 걱정거리는?

시골집에서 키우는 '미남'이라는 강아지가 있다. 시골이 다보니 자유롭게 풀어놓는데 밤마다 친구들이랑 노는지 잤은 외박을 해서 걱정이다. 최근에는 아생동물과 크게 싸우고 얼굴에 상처를 입고 돌아와 며칠 동안 밖에 나가지도 않고 힘없이 축 처져만 있어 가슴이 아프다. '미남'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살좀빠!

중간고사

못 생겼어

없어져버렸!

자소서

여
친
없

오늘 쌓인 분노는 백발백중으로 풀어야 제맛!

분노타파 쾌감슈팅

백발백중

FOR KAKAO



스토어에서 백발백중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쿠폰번호 : 100100BAEK

쿠폰번호를 입력하면 다이아 100개 드립니다

· 유의사항 : 선착순 10만건 지급, 중복 입력 불가 · 사용 기간 : 10/15~11/30

이번 촬영은 당신에게 있어 어떤 의미인가?

용기가 부족한 나에게 표지 모델 촬영은 큰 도전이었다. 이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의 인생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경험을 선물해준 「대학내일」에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도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우리 대학생들. 우리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때로는 효율과 빠름보다는 느낌을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빠르게 뛰어가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대학생이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영토, 콘텐츠로 넓힌다!

문화창조 아카데미 크리에이터 모집

크리에이터 모집

융합적 명품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베이스캠프,
문화창조아카데미에서 콘텐츠와 기술,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융합의 혁신을 만들어갈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문화체험기술창조과정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모집대상 콘텐츠 창작과 기술에 대해 열정과 경험을 보유한 자
모집인원 40명 (2016년)
교육기간 2016. 3 - 2018. 2 (2년)
2년 6학기제(1학기 16주), 비학위 과정(1년마다 Certification 수여), 전일제 교육
교육내용 기본교육(1학기) ⊕ 프로젝트(2-4학기) ⊕ 인큐베이팅(5-6학기)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심층면접
- 1차전형 (서류심사): 자기소개서, 프로젝트 제안서,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서류평가
- 2차전형 (면접심사):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평가 등 질의응답

지원방법 접수기간 2015. 11. 2(월) - 11. 13(금) 16:00시까지 (2주간)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프로젝트 제안서, 포트폴리오
제출방법 한국콘텐츠진흥원 웹하드(<http://webhard.kocca.kr>)에 등록

입학실명회 2015. 10. 21(수) 14:00, 문화창조융합센터(서울 상암동 소재)
문의 02-779-6807~8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창조아카데미TF팀 김철민 과장, 이이슬 주임

교수요원 초빙

문화창조아카데미 융합적 문화콘텐츠분야 중 문화체험기술창조과정 교수요원을 초빙합니다.
(공연·전시·테마파크·미디어아트 등 예술분야에 로보틱스·자동제어·SW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러지를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의 문화체험형 엔터테인먼트로 창조하는 분야)

모집분야

책임 및 전임교원(O명)	직무분야	1. 문화체험 기술총감독 3. 지식융합 감독	2. 문화체험 창작감독 4. 혁신서비스 센터장
문화체험기술 총감독	자격사항	다양한 네트워크, 경험 및 관리능력 보유자	
	직무수행내용	학사, 교무 및 대외협력 등 아카데미 업무 총괄 /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문화체험 창작 감독	자격사항	산업 또는 기업일치형 헌업 및 경력자	
	직무수행내용	프로젝트 구성, 지원 및 관리 업무 총괄 / 아카데미 R&D 총괄	
지식융합 감독	자격사항	문화콘텐츠, 기술, 인문학 분야 경력자	
	직무수행내용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문화, 기술, 인문학분야 융합형 교육 총괄	
	자격사항	기업관련 경력 및 헌업 총사자	
혁신서비스 센터장	직무수행내용	프로젝트 성과의 특허, 저작권 관련업무 총괄 창업에 필요한 법률, 자금 등에 관한 정보, 절차 지원 연구 성과의 상업화를 위한 전시, 홍보업무 총괄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15. 10. 26(월) 18시(정각 마감)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방문 시 본인 외 인편 활용 가능

접수장소 한국콘텐츠진흥원 경영지원단 인재개발팀

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재개발팀 061-900-6153, 6157

754 www.univ20.com



“

이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의 인생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10

다음 표지모델이
되고 싶다면?

covermodel7@naver.com

으로 지원하세요.

아직도? 이젠 연어지

100% 자연산 알래스카 연어
맛있고, 건강하고, 믿을 수 있으니까!

담백한 맛 | 첨가물 0% | 세계 10대 슈퍼푸드 연어



알래스카 연어는 100% 자연산 연어, 대두유, 정제수, 정제소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참 좋은 업그레이드
ALASKA SALMON
알래스카 연어



Contents

2015.10.19~2015.10.25

Start

16

PLACE
당신의 책을
골라드립니다

18

COVERMODEL'S
BEAUTY
이주의 모델 전가영씨의
뷰티 아이템

19

OUT CAMPUS
사진 한장이면 되는
공모전 BEST4

20

TOON
기망갤러리

21

LOVE TALK
이별 후 찾아오는
전 남친 때문에 고민

22

SCENE #1
개과천선

23

QUESTOON
동네변호사 조들호

24

CULTURE CRITIC
눈 뜨면
코 베 가는 TV

25

SPEEDWAGON
도와줘요 스피드웨건

26

PICK UP
아, 사이다!
속 시원하다

30

ISSUE

인무너스 워
불길 치솟는 취업전쟁 속
문과생의 고군분투기

32

CULTURE

사랑한다면
음원강패처럼

깡패는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38

PICTURE
도시의 아름다운
패턴 8가지

40

UNIV20.COM
청년실업 현정국 4선
힘들다는데 해줄 게 없어서
노래라도 준비해봐어

42

UNIV20.COM
캘리그래피 체험기
초보자도 약필도 할 수 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자

44

FOCUS

산부인과 가는 여자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가야 하는 곳, 맞다

46

FOCUS

과자 워페어 6
: 콜 오브 당분

48

WEEKLY STYLE

다재다능
청자켓 LOOK

50

GEEK

연지출판사 민희진
'그냥 한번' 펴낸 책이
벌써 10권째

52

INTERVIEW

축구해설위원 박문성
묵묵히 판 축구라는 한 우물
내공이라는 것이 폭발했다

56

THINK

이별은 가을 탓,
겨울엔 사랑을!

58

20'S VOICE

당신은 몇 사람인가요

End

대학내일 지원 안하고도
뒷감당 할 수 있겠어요?

학점 말고 팀워크

우리가 시간이 없지
일이 없나?

토의 말고 재치

자격증 말고 멘탈

학력 말고 뇌살

2016 내공 터지는 대학내일 인재를 모십니다
신입사원 공개채용

지원자격 2016년 1월부터 출근 가능한 누구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corp.univ.me/recruit

접수기간 2015년 10월 23일(금) 23:59까지 전형절차 서류심사 → 필기시험/직무인성면접 → 합숙실무면접 → 최종채용

모집분야	채용부서	담당업무	모집인원	우대사항
20대커뮤니케이션 본부		캠페인/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0명	광고/마케팅공모전 수상경력, 마케팅분야 실무경험 보유자
		채용대행 기획 및 운영	0명	채용행사/이벤트 실무경험 보유자
디지털커뮤니케이션 본부		SNS 마케팅 기획 및 운영	0명	SNS 채널 운영 및 SNS 마케팅 실무경험 보유자
		SNS 콘텐츠 기획 및 에디팅	0명	SNS 콘텐츠 트렌드 인사이트, 콘텐츠 기획 경험 보유자
		SNS 콘텐츠 디자인	0명	디자인 관련 전공자, SNS 콘텐츠 디자인 실무경험 보유자
20대연구소		인포그래픽 디자인	0명	디자인 관련 전공자, 인포그래픽 디자인 실무경험 보유자

알바 끝판왕 알바몬 알바몬앱



다양한
알바 찾기



간편한
이력서 작성



편리한
알바 지원



개인맞춤
알림메시지



albamon

STAFF

발행·편집인 장명국
공동 대표 유영기 김영훈
이사 김창배

콘텐츠팀

팀장 이정섭

디지털미디어파트

에디터 홍승우 조웅재 김혜원 김진원 김효은
백수빈 양주연 강민상
디자인 김지현 유승서

매거진파트

편집장 전아론
에디터 기명균 김슬 이민석 조아라
디자인 김해정 윤희선
교정교열 차은선

브랜드저널리즘파트

편집장 정문정
에디터 김초롱 박정옥 주태환 김수현
디자인 이승은 조세진

학생리포터

기획팀 광민지 남세현 신재라 최효정 권성환
김선화 윤소진 임기훈
문화팀 공태웅 김승미 김유진 배대원 임현경
사진팀 배수민 오주석 이초원조혜미 최진영

프리랜서

김기형 전하은

20대 커뮤니케이션 본부

본부장 이태영

책임에디터 신정

20대 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조인천

책임메니저 김지혜

메니저 유리나 신예지 박미소 김예림

사원 송태광 조하니 이혜민 손유리

20대 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김우준

메니저 김영현 신현정 이지연 홍보미 육혜진

김민정 이재우

에디터 황해원

사원 한희진 백소연

20대 커뮤니케이션 3팀

팀장 김부진

메니저 안길상 문왕기 조소라 나현아 하이슬

손기석 권오태 김동하

20대 커뮤니케이션 4팀

팀장 이상진

수석 정진현

책임메니저 김동주

메니저 신가는 양상범 명범준 박정은 송승화

홍선아

사원 손혜지 박상현

HR PRO팀

팀장 김종원

책임메니저 박준하 유재문

메니저 최규성 유진혁 홍승우 신재영

사원 김형민 이준호 서창호 정기현 이상훈
김정석

공공커뮤니케이션팀

팀장 박강두

책임메니저 진우경 강국현

메니저 김민아

사원 박윤희 이상엽 안성은 송정훈

디지털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김범준

수석 이혜정

책임메니저 김현승

메니저 남승혁 박종남 강희은 이상진 우병조
김재현

사원 조현상 이상복 정진복 서준원 전단비
김찬우 한동주

디지털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차정기

책임메니저 이교영 이진희

책임에디터 임영화 김효선

메니저 유효정 권가람 권예빈 장현주 양준호

홍새봄 이연제 박지성

사원 김규태 김다운 김애리 김민주 임이슬
김동규 김경민

마케팅전략본부

본부장 김창배

팀장 박배길 탁귀영 이동선

수석 이수이 박지호 황정은

책임메니저 이수지

메니저 최진성

이비즈(E-Biz)팀

팀장 권판진

수석 임남훈

책임메니저 김부록 하윤희 고은영 강주빈

메니저 김상호 이은주 윤태형

사원 박태진

20대 연구소

소장 박진수

수석연구원 김영기

책임연구원 호영성 문송이 송해운

연구원 이재훈 임희수 텃에

사원 임다정

지원위원 신익태

SNS전략제안연구소

소장 정은우

기획지원파트

책임메니저 이윤경 방수진

메니저 윤정심

인재경영팀

팀장 박진수

책임메니저 조은주

메니저 김이슬 김예지

재무팀

수석 김소연

책임메니저 박육민

메니저 김주은

인턴 김유진 황주광 정규홍 장미희 조지은

김소영 황미나 배준현 김성영 김주리

김선아 김은미 박승기 배용근 송성일

송은영 오선정 이소정 이현승 전희은

전혜원 정희성 조윤희 전계은 방소현

한은지 김원영 허소윤 위지영 손수민

유아연 정지영 최효정 전효경 박찬호

김현중

마케팅리베로

송준한 오지선 이지영 정은지 조민경

조해림 문나영

유니파일러

강현규 고연주 김민지 김예아 박예슬

박하연 정원우 하유정

인쇄 프린피아

대표번호 02-735-3800

팩스 02-735-0005

등록번호 서울다 05909

등록일 1999년 7월 9일

주소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43, 인성빌딩

(주)대학내일 홈페이지 www.naeilshot.co.kr

20대 연구소 홈페이지 www.20slab.org



복면사왕 : 현대모비스 편

HYUNDAI
MOBIS

현대모비스는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자동차 부품회사는 신차 개발 계획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일 뿐이라는 편견은 버리자. 요즘은 부품회사의 제안에 따라 '친환경', '지능화'된 미래 자동차 기술이 발전해가는 패러다임이 대세. 자료조사를 통해 미래 시장을 예측하고, 연구인력을 아낌없이 서포트하여 '첨단운전자지원' 기술 개발을 확보하려는 현대모비스, 다음 라운드에 진출!

'남중-남고-군대-현대'는 고난의 지름길, 모태솔로의 엘리트 코스라고 믿는가? 윗사람의 말에 아랫사람이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딱딱한 기업문화라면, 현대모비스에 그런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문화팀'은 불합리한 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2명의 전문 심리상담사는 수시로 사원의 심리건강을 챙긴다.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 퇴근을 강요한다!

선배들은 말한다. 영혼을 주고 월급을 받았다고. 그러나 현대모비스에서 이런 교환은 일어나지 않는다!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현대모비스 경영 아카데미'라는 교육체계를 바탕으로 누구든 체계적으로 자기개발 하도록 지원한다. 유능한 직원에겐 업무와 외국어 능력을 집중 향상하고 MBA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Top Talent 육성' 프로그램은 현대모비스 식 컴피티션.

신입사원의 필수영단어는 Fwd: 혹은 CC일지도 모른다. 하루에 최소 열 번은 써야 하니까. 현대모비스는 모든 업무문서를 중앙서버에 저장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무관리 혁신시스템'을 사용한다. 팀장님께서 '메일 보냈어?' 물으신다면, '시스템에서 검색해보세요!'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회사, 그곳이 바로 현대 모비스.



당신의 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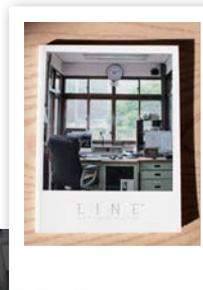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폭격을 피해, 당신을 위한 단 한 권의 책을 찾아서

골라드립니다

햇빛서점 **있는 그대로의 너를 위한 이야기**

이슬람 사원 옆길로 쪽 올라가다보면 다다른 작디작은 공간. '햇빛서점'이라는 노란 네온사인이 달려 있는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곳곳에 전시된 근육질의 나신(裸身)을 담은 일러스트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수위 높은(?) 화보집과 간행물, 독립출판물로 가득한 이곳은 한국에 하나뿐인 LGBT, 그러니까 '성소수자' 전문 서점이다. 아직 준비된 게 없다면 엄살을 부리는 사장님의 말과 다르게,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내용의 책들이 가득하다. "이건 좀 야한 것 같고, 이건 너무 메시지가 강한 것 같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하나 걸러지는 책들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착잡해진다. 마지막에 남은 건 누구나 읽을 수 있을 법한 동화책. 차마를 입기 좋아하는 열 살 남자가 이 공치가 '사과소녀 선발대회'에 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공치가 대회에 나갔을 때 "차마 입은 공치가 제일 예뻐!"라고 말하는 가족들의 모습은 이곳에 있는 모든 책들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집약한다.

Reporter 임기훈 s10carrot@gmail.com Photo Reporter 조혜미 hialienpika@naver.com



ADD

서울 마포구
염리동 9-30 1층

SNS

www.facebook.com/
stopfornowbooks

OPEN/CLOSE

오후 1시에서 8시까지. 일요일 휴무.



ADD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10길 843

SNS

www.facebook.com/
sunnybooks.kr

OPEN/CLOSE

토, 일 오후 2시에서 8시까지

일단멈춤 **일상의 심표를 찾는 공간**

따스한 가을 햇살이 골고루 스며 있는 '일단멈춤'은 여행을 주제로 한 단행본,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는 곳이다. 독특한 가게 이름을 보니 문득 책과 여행이 비슷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잠시 멈추고 나 자신을 오롯이 들여다볼 수 있으니, 어떤 책을 고를까 고민하던 중 주인에게 추천을 받아 간이역을 따라 가는 기차 여행 여정을 담아낸 매거진 'LINE'을 골랐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명봉-별교-진상-진주-진해역을 따라 가는 여정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간이역의 소소한 풍경과 소박한 맛을 담아낸 사진을 보니 특별하지 않아 더욱 깊이 공감하게 된다. 훌쩍 떠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책을 펼쳐 보면 저자의 응원을 받아 일상을 내려놓고 여행을 갈 용기가 생길지도 모른다. '일단멈춤'에는 여행과 관련된 종이 매체인 독립출판물, 단행본이 주를 이루는데 흔히 생각하는 가이드북은 없다. 여행에 대한 사소한 기록부터 사진까지 여행의 단편들을 모아 놓은 책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작은 여행 소품들도 판매하고 있으며 매달 작은 전시와 여행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Reporter 권성환 freedom_han@naver.com Photo Reporter 최진영 jinyoung4340@naver.com

책방 피노키오 작은 그림 위에 물들다

입구에 파란색 페인트로 반듯하게 적힌 '책방 피노키오'라는 상호는 주인이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할 때 사용한 이름 '피노'에서 따왔다. 소나무라는 뜻을 가진 스페인어 '피노'는 본명의 마지막 자인 소나무 숲에서 비롯된 것. 가게 이름에 얽힌 사연을 듣고 책방을 둘러보니 다양한 그림책이 진열돼 있다. 무조건 밝고 예쁜 이야기보단 작가만의 개성과 독특한 해석이 담긴 작품들을 선정한다. 책방 주인에게 추천받은 책은 손 탕의 『ARRIVAL』이라는 두꺼운 그림책이다. 연필로 그려진 흑백 세상은 마치 무성영화를 보는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가 가족을 떠나 다른 환경에서 적응하는 내용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 했던 시리아 난민이 떠오른다. 실제로 혼혈인 작가는 호주에서 이민자로 적응해나가야 했다. 작가가 겪었던 외로움은 그림책 속 아버지의 불안한 눈동자가 되었다. 책을 덮으며 외로움에 대해 생각했다. 이처럼 책방 피노키오의 그림책은 사람의 감정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애써 문장을 해석하지 않아도 그림이 던지는 물음에 자연스럽게 젖는다.

Reporter 윤소진 leeu0651@naver.com Photo Reporter 최진영 jinyoung4340@hanmail.net

ADD

서울 종로구 계동 2-12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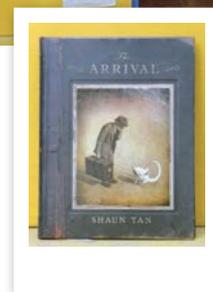
www.facebook.com/
musabookstore

OPEN/CLOSE

그때그때 달라요



17



ADD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194-11

SNS

www.facebook.com/
Pinokiobookshop

OPEN/CLOSE

매일 오후 2시에서 9시까지

책방 무사 오늘도 무사히 열었습니다

조용한 북촌을 분위기 따라 걸다보면 어느새 '책방 무사'라는 가게에 닿는다. 그리 넓진 않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책들이 웅기종기 모여 누군가 잠시 들려주기만을 기다린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뮤지션 요조와 그녀의 손길이 곳곳에 닿아 만들어진 차분함이 손님을 맞이한다. 책 하나하나를 구경하며 책방 주인의 취향을 짐작해 보다가, 책 추천을 부탁했다. 그녀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 나에게 또 '책'을 권했다. 무슨 말인가? 바로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잡지, 『책(chaeg)』이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늘 책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 시간을 죽이는 나에게 먹음직스러운 메뉴판을 찾아준 그녀가 참 고마웠다. 책방에 들어서며 한 번, 책을 부탁하며 한 번. 책을 받으면서 또 한 번. 자연스럽게 오가는 대화를 통해 주인이 자신만의 공간에 왜 이 책들을 담아 공개하는지 조금은 가능할 수 있었다. 나는 이야기의 재미에 푹 빠져, 유명한 요조가 아닌 인간미 있는 책순이 주인장을 기억하며 책방을 나섰다.

Reporter 공태웅 dnriver@naver.com Photo Reporter 이초원 lcw588708@naver.com

표지모델

인생템

Editor 이민석 min@univ.me



피부톤 골분
피부타입 복합성
특이사항 피부가 피곤하고 지칠 때
이마에 좁쌀여드름이 올라옴

예쁜 이목구비는 기본이요, 환하게 웃는 건치 미소와 깨끗한 피부까지.
미인의 모든 요건을 다 갖춘 그녀의 인생템 네 가지.

Beauty Item >>>



①

페리스 잉크 더 촉촉

페리페라

선명한 컬러감과 짱짱한 발색력, 타투 같은 지속력으로 촉촉하고 가벼운 입술을 연출해주는 제품. 립 제품은 자주 지워져서 수시로 수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 제품은 워낙 지속력이 뛰어나 나처럼 수정하기 귀찮아하는 사람들에게 딱이다. 가격 9000원.



②

다이아몬드 파우더

메이크업 포에버

다이아몬드 펠을 애꿎살이나 눈 부분에 포인트로 콕콕 찍어주면 영롱하고 불링블링한 눈매를 가질 수 있다. 양에 비해 가격이 조금 사악하지만 그만큼 효과가 뛰어나고 생각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는다. 가격 3만 7000원.



③

악마쿠션

라라베시

커버력이 좋기로 소문난 라라베시 악마쿠션은 SS, SF, FW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개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 골라 쓰면 된다. 자연스러운 톤 보정과 함께 촉촉하고 밀착력과 지속력도 좋아 자주 애용하는 제품이다. 가격 2만 4000원.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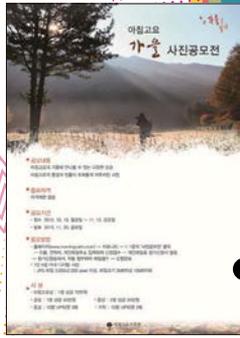
월 프로디유스 멀티 드라이 오일

녹스

오일이지만 가벼운 사용감이 인상적이고 얼굴은 물론 헤어나 보디에까지 바를 수 있다. 무엇보다 향이 너무 좋아 바를 때마다 달달해지고 행복해지는 기분이 든다. 쌀쌀해진 날씨에 더욱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 가격 50ml 3만 2000원.

사진 한장이면 되는 공모전 BEST4

Editor_ 커뮤니티 ad@univ.me



가을 느낌이
충만한 사진을
찍고 싶은
너님

~11.13
아침고요수목원
제3회 아침고요수목원 가을 사진 공모전

주제 아침 고요의 가을에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의 사진
혜택 아침 고요상 70만원
요약 가을 아침에 볼 수 있는 인물&풍경 사진에 자신 있다면 도전

01



사랑과 꿈의
행복한 순간에
대한 사진을
찍고 싶은 너님

~10.23
롯데월드몰
LOVE&DREAM PHOTO FESTIVAL

주제 사랑 그리고 꿈(LOVE & DREAM), 그 행복한 순간 (인물, 자연, 건축 부문)
혜택 대상 555만원, 예비뉴얼 아트를 개인 작품 전시 기회 제공
요약 롯데월드몰, 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를 배경으로 사랑과 꿈을 담아낼 수 있다면 도전 (feat.러버덕)

02

~10.30
한국수자원공사
2015 K-WATER 물사랑 공모전

사랑하는
물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너님



주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일반 디지털 사진, 스마트폰 사진, 영상광고)
혜택 일반 디지털 부문 대상_300만원, 스마트폰 사진 대상_70만원, 영상 광고 대상_300만원
요약 행복을 전해주는 색다른 물 이야기를 찍을 수 있다면 도전

04

~11.01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 센터
제4회 워킹홀리데이 인포 센터 공모전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사진 많이
찍고 싶은 너님



주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해당 국가에 체류하며 본인이 경험한 어학연수, 여행, 일, 기타 관련 경험 또는 워킹홀리데이 준비 과정 성공과 실패, 사건·사고 사례 등 (수기, 사진, 영상, 포스터)
혜택 최우수상 외교부 장관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요약 젊음의 무대가 세계라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도전

03



Toon :

기묘한 갤러리

기묘 / 기묘 / 기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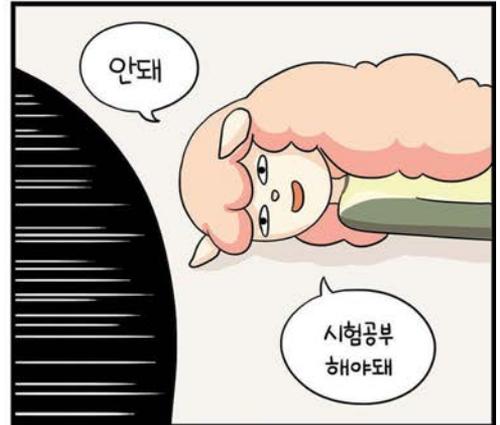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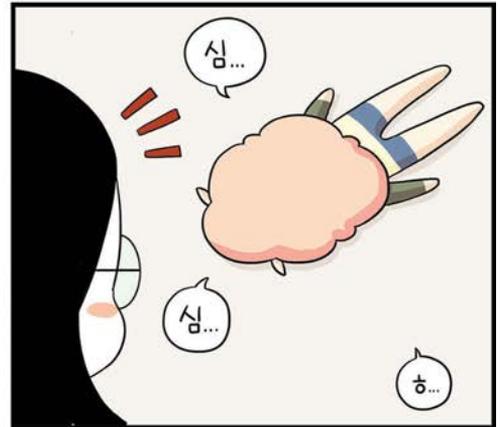
20



< 심심해 >



< 안돼 >





중국어, 참 쉽게 배우려면
교수님보다 고수님을 따르라

중국어 신청만 해도, **0**원
태블릿PC + 해외여행

 **문정아 중국어**
한 4년 중국어 문장어가 담았다

MS교신 인증 태블릿
MS본사 시애틀 캠퍼스

www.no1hsk.co.kr
상담전화 02.725.2771

이걸 답해줘?
싶은 것도 다 해드립니다 ^^

3인 3색

땡땡 연애 상담소

땡땡 연애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야한 사연, 야한 사연, 야한 사연...
안 야한 사연 다 받습니다.
밀도 끝도 없어도 좋아요. 그냥 드루와~

이주의 사연
22세, J양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갑작스레 헤어지게 돼서 많이 힘들었어요. 6개월이 지나고 우리는 밥 한번 먹자고 다시 만났죠. 그리고 그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술도 마셨어요. 그러다 섹스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간간이 연락을 이어가다 다시 만나서 섹스를 했어요. 그 뒤로는 연락이 잘 안 와요. 저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자신의 환경이 나아지고 1~2년 뒤에 그때도 연이 달으면 만나자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이 사람이 좋은데 그 사람의 속마음은 뭘까요.

구 남친은 '환경이 나이지면'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말의 속뜻이 궁금한데요. 만약 그분이 1) 큰 병에 걸렸거나 2)수배 중이 아니라면 인연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교제는 1~2년 뒤로 미루면서, 만나면 관계를 갖는 다니요. 상대 쪽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운과 여자를 남기면서 싱글로 남겠다는 고약한 심보를 받아주기엔 의뢰자님의 젊음이 가까워서 가슴이 아프네요. 물론 구 남친의 짜질함과 뜻뜻미지근한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지금 그를 보내면, 더딜실 춤을 출 날이 곧 돌아올 것이니.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Editor_조이라 ahrajo@univ.me



보수파 패럴

베일 속에서 더욱 빛나는 여자

+

고민하고 있는 연애 문제를 상담소에 문의하세요. 익명으로 나가니 신상 털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연을 주실 땐 구체적으로 6하 원칙에 맞게 풀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편하겠죠?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배스킨라빈스 하프갤런 해피콘**을 드립니다!

담당자 이메일 min@univ.me

▷ 이름, 이니셜, 나이, 성별, 휴대폰 번호, 구체적인 사연을 위 메일로 보내주세요!



남자에게 있어 '전 여친'-아직도 나를 좋아하고 있는-이란 참 편한 존재예요. 이미 충분히 편한, 소위 말해 '잡은 물고기'이니까요. 게다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면 그 순간 갑을 관계는 확실하게 정해지죠. J양은 지금 이 관계에서 철저하게 '을' 입장이예요. 전적으로 '갑'의 의사와 욕구에 따라 만나는 '을' 말이에요. 말 할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당신에 대한 그의 사랑은 이미 식은지 오래입니다. 말씀하신 행동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비겁한 인간이에요. 더군다나 이별 후 자신의 들끓는 욕구를 해소하려 '전 여친'을 만난다... 과거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보이네요. 이런 비정상적인 만남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과거의 기억마저 영망으로 만들 뿐이거든요. 해줄 말은 딱 하나네요. 기억에서 지워버리세요, 끝!

Editor_이민석 min@univ.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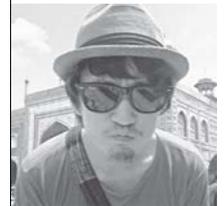


중도파 패럴

크고 아름답고 단단합니다. 멘탈이요.

제3자 입장에서 다시 써 볼게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J는 그 남자를 사랑했어요. 필수필부가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둘은 이별했고, J는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1년 후, 남자는 J가 보고 싶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섹스를 하고 싶은 거죠. 밀쳐야 본전인 심정으로 J에게 연통을 보냅니다. J는 여전히 남자가 좋았고, 둘은 그날 밤 함께 잤습니다. 남자애겐 고민이 생겼어요. 이러다 J와 다시 엮히게 생겼거든요. 남자는 한 번만 더 J와 잔 후 확실히 정리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J는 여전히 남자가 좋습니다> 자, 어떤가요? 3자 입장에서 보니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지금 J양의 사연을 보는 제가 그래요. 그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 만나세요.

Editor_박정욱 wook@univ.me



진보파 패럴

나는, 너는, 우리는 모두 섹스로 태어났다.

Editor 김슬 dew@univ.me

“세상은 개과천선하지 않는다” 드라마 <개과천선>



김석주는 자기가 만든 노조 와해 프로그램이 이렇게 여러 기업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걸 알까요? 인생이 그래서 재미난 겁니다.

대형 로펌에서 가진 자들의 이익을 위해 변론하던 김석주는 불의의 사고로 머리를 맞고 기억을 잃는다. 남은 거라곤 몇십 년을 달고 살았던 법 지식뿐. 불행인지 다행인지 기억 상실에 걸린 그는, 승소를 위해서라면 술수도 개의치 않는 악덕 변호사에서 자신은 “법을 공부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하고 싶었을” 거라며 선하게 웃는 ‘무명남’으로 변해버린다. 180도 달라진 김석주에게 편법을 합법적으로 저지를 수 있게 도와주는 ‘차영우 로펌’에서의 생활은 안 맞는 옷처럼 불편하기만 하고, 결국 그는 회사를 나와 개인 변호사로 악자들의 편에서 사건을 맡기 시작한다. 패배도 하고 작은 승리도 거두면서 그는 분명 좋은 방향으로 변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김석주가 모 기업과 노조의 잠정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소식을 들은 차영우 대표는 싸늘하게 읊조린다. 여러 기업에서 써먹는 ‘노조 와해 프로그램’의 기초 작업을 누가 한줄 아느냐고, 바로 김석주

라고. 인수합병 때마다 늘 노조 문제가 따랐고, 그것까지 해결해달라는 경영진의 요구에 직접 틀을 만들었던 것이다. 김석주는 거대 로펌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의 자신이었다. 엔딩의 방점이 개과천선한 김석주의 웃는 얼굴 대신 이전의 김석주가 기록권을 위해 구축해놓은 틀에 찍혀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우리 역시 그보다 덜 직접적일 뿐, 그 틀을 완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톱스타들의 열애설도 함께 터진다. 기사의 밑에는 늘 같은 댓글이 달린다. “또 뭘 덮으려고?” 그리고 믿기 힘들지만 잠시나마 ‘덮인다’. 이런 사회가 썩었다고? 그 썩은 틀을 짜고 판을 만든 것은 ‘(내가 아닌) 그들’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그들의 판을 공고히 만드는 데 나의 지분이 1%도 없다고 말할 순 있을까? 그것이 환멸에 의한 무관심이든, 먹

고살기 바빠 시선을 돌린 것이든, 당장 더 재밌는 것을 추구했던 것뿐이든 말이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 냉소하곤 한다. 맞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 김석주 또한 머리를 세게 맞고서야 변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세상이 변하는 속도보단 사람이 더 빠르게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개인의 작은 정의와 행동이 드라마틱한 성과를 낼 수 없더라도 그 주변을 희미하게나마 들썩였다면 그 또한 가치 있는 것이라 믿는다. 차영우 로펌에서 일하던 변호사들이 어느 순간 김석주의 조력자가 된 것처럼 말이다. 지는 날이 이기는 날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신이 몸 담았던 더러운 판의 반대편에 섰다. 현실을 사는 우리가 것처럼 완전히 변할 순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택할 수 있다. 썩은 판을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겠다고, 당장의 즐거움과 귀찮음을 위해 눈길을 돌리지 않겠다고 말이다.

Webtoon

동네변호사 조들호

해클링 / 네이버
2013. 3. 6 ~



“우리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겠다는 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도합 12년을 가만히 있었다. 어른들은
내가 가만히 있길 바랐고, 난 그들의 방식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내 좌우명은 어렴풋이 '착하게 살
자'로 정해졌다. 착하게 살자는 다짐은 곧 '가만히 있지'였
다. 졸업 후 만난 사람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비판하
고 반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모두가 맞는 말만 하는 건 아니었다.
과장과 비약이 난무했다. 처음엔 속으로 비웃었지만, 이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좌우명부터 버려야 했다.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석정현은 가만히 있는 것에 익숙지 않다. 기성회비가 등록
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변호사 조들호를 찾아온다. 그동안 지불
한 기성회비를 돌려받기 위해서다. 역시나 '가만히 있으라'는 압박이 들어온다. 과대표는
석정현의 행동 때문에 학생들이 받을 불이익을 들먹이며 "그럴 시간에 스펙이나 쌓는 게
개이득"이라고 충고한다. 살면서 많이 들었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던 말이다. 규칙(등록
금을 내야 한다는)에 동의하고 현실(가장 중요한 건 스펙이라는)에 순응해야 현명한 사
람으로 인정받는다. 'No!'라는 말에 돌아오는 건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괜히 오버한다'
는 반응이다. 중요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개이득'인지 잘 모른다. 모
든 고민은 거기서 출발한다. 기성회비를 돌려받는 것이 중요할까, 아님 스
펙 쌓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할까. 선택의 답을 내릴 순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가만히 있었다면 그 기성회비가 원래 자기 돈이
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석정현은 '오버'했기 때
문에 몰랐던 '개이득'을 손에 쥐었다. 그래서 '가만히 있
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은 틀렸다. 가만히 있겠다는
건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
겠다는 것밖에 안되니까. '솔직하게 살자'로
좌우명이 바뀐 지 5년 정도 지났다. 자
주 '오버'하고 때론 과장과 비약이
난무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
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다.



2015년 최저임금

시금 5,580 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중에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함

albamon



눈뜨면 코 베 가는 TV

〈용팔이〉에서 주원은 김태희에게 방을 구해주겠다며 본인이 광고하는 '직방' 앱을 켰다. 작품성과 몰입도가 땅으로 꺼지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듯 말이다. 이제 시청자들은 노골적인 PPL(Product Placement) 장면을 포착하고 공유하며 웃음거리로 삼는다. 그들에 의해 〈더킹 투하츠〉는 '던킨 돈하츠'라는 근사한 이름을 얻었고, 〈장옥정, 사랑에 살다〉는 '장옥정, 목우촌에 살다'로 불렸다. 간접 광고는 더는 간접적이지 않게 돼 모두에게 정체를 들키고 말았다. 그런데도 PPL은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력해졌다. 모두가 영화, 드라마, 예능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는 PPL을 지켜보며 웃기만 했기 때문에.

'웃어넘긴다는 것은 '문제의식의 범위 밖에 두는 것'과 같다. 뻔히 보이는 속내를 비웃으

면서도 송혜교가 바른 립스틱이 어느 회사의 몇 호인지, 조인성의 재킷이 얼마인지 검색해본다. 앞선 조소는 소비욕을 합리성으로 포장하는 자기기만에 불과하다. 무의식 속엔 이미 상품의 이미지가 씨앗처럼 심어졌고 그 싹은 의식을 향해 고개를 들이민다. 〈무한도전〉에서 박명수가 아이유에게 건넸던 작은

음료, 〈복면가왕〉에서 심사단이 쓰던 헤드폰을 '나도' 갖고 싶다고. 이러한 비자발적 욕망은 기술이 발전하고 매체가 다양해질수록 일상 깊숙한 곳곳에 침투하기 쉽다.

얼마 전 총 조회수 5천만을 돌파하며 막을 내린 〈신서유기〉는 이 방면에서 최고의 노림수다. 출연진은 거리낌 없이 특정 상표를 말했고, 입었고, 먹었다. 자막에는 A사의 로고가 정성스럽게 나타났고, 카메라가 B사 제품을 흡소핑처럼 상세히 훑기도 했다. 나영석 PD의 "다음 시즌부터는 광고를 받겠다"는 말은 기업을 향한 일종의 사업 제안과도 같았다. TV를 벗어난 웹 예능은 자유롭지만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이제 PPL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다. 그것도 아주 활짝. 시각과 청각이 닿는 곳마다 수많은 '그 회사의 이 제품'이 여과 없이 흘러 들어올 것이다. 범람하는 상품들로부터 무의식을 지켜내기 위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적어도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이다. '이게 정말 내가 사고 싶은 걸까? 아니면 내 무의식 속에 심어놓은 타인의 욕구가 발현하는 중인 걸까?'





도와줘요

스피드웨건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는 무궁무진. 한 주간 있었던 중요한 이슈를 스피드웨건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01

TPP가 뭐지? PPT는 아는데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이 얼마 전 화제였는데, 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으로 총 12개국에 참여하고 있지. 지금껏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 협정은 세계경제 규모의 40%를 차지할 만큼 거대하다네. 처음 만들어진 2005년엔 별 볼 일 없었는데, 2008년 미국의 참여와 2013년 일본의 참여로 급부상했다네. 사실 한국에선 이명박 정부 때 참여 요청이 왔지만 거절했었지. 왜냐하면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TPP 10개국과는 이미 FTA를 맺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네. 지금 와서 TPP에 참여한다면 중국과 불편한 사이가 될 수도 있다네. TPP의 목적은 아시아 경제 질서가 중국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견제 수단이기 때문이지. 어찌 됐든 우리나라도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신중하게 득실을 따져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란다네.

잠깐! FTA와 TPP의 차이가 궁금한 사람이 있을 거라네. FTA는 국가 간 1:1 협정, TPP는 다수 국가간의 협정이란네. 그럼 20000!

02

임산부 사회 배려점수 한국은 '낙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임산부 사회 배려점수는 10점 만점에 4.3점으로 낙제점을 기록했다고 한다네. 사람들에게 왜 임산부를 돕지 않았느냐고 질문했더니, '임산부인지 몰라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더라군. 사실 임신 초기에는 티도 안 나고, 불편한 게 없어 보이기도 한다네. 하지만 이때가 유산의 위험이 가장 큰 시기라고 하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점 때문에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열쇠고리와 카드 케이스를 만들었지만, 홍보가 잘 안 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네. 이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임산부 배려 운동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네. 시민 의식의 함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인구문제연구소는 "한국은 인구 소멸국가 1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네.

03

까만 폐에 뺨 뚫린 목구멍... 담뱃갑에 경고 그림 필수

정부가 올해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 가격을 크게 인상했다네. 가격 인상과 함께 사람들도 금연하고자 노력했고, 많은 사람들이 유행처럼 전자담배를 구매하며 금연을 시도했다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끊은 건 아니었더군. 담배 판매량은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하네. 덕분에 세수는 작년 대비 5조 8천억원이 증가했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흡연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하네. 특히나 청소년의 흡연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지. 흡연이 건강에 안 좋은 건 본인도 알 거라네.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네. 이 법안은 2002년부터 11번이나 발의를 했는데, 12번째 발의에 드디어 통과된 것이란네. 앞으로 담배를 피울 때마다 까만 암 덩어리 그림을 보게 될 거라네. 그 끔찍한 그림을 마주하기 전에 금연에 성공하길 바라겠네.

담배갑에 경고 그림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캐나다에선 흡연율이 6% 떨어졌다는. 이래도 피울 텐가.

04

부잣집 자제들이 국가장학금을 왜 받아갔는가

대학생이라면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네. 지원해주는 금액이란 게 절대 적지 않기에 초창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지.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고소득자 자녀들도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이었는데, 정확한 소득 수준 산정이 현실해지게 됐다네. 2014년과 2015년의 1학기 소득분위를 비교한 조사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 중 약 70% 정도가 1년 사이에 소득분위가 변경됐다고 한다네. 아마 많은 학생들이 변경된 자신의 소득분위에 당황스러웠을 거라네. 우리 집은 그대로인데 무엇이 바뀐 것인지 궁금했을 테지. 이유는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란네. 과거에는 건강보험료로 소득 산정을 측정했다면, 올해부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정보 등을 확인하면서 변경이 됐다고 한다네. 위 방식대로라면 매 학기 소득분위가 변경될 수 있다네. 따라서 학생들은 미리 잘 준비해야 피해가 없을 거라네.

소득분위 바뀌어도 너무 놀라지 말게. 고소득층 자제들의 국가장학금 이중수혜를 막기 위함이니.



“아, 사이다!”

고구마 100개쯤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해? 미운 누군가 때문에 열이 뻘뻘하다고? 묵혀뒀던 걱정 때문에 소화불량이 오기 직전이라니! 네 속을 확 뚫어줄 것들이 여기 가득하단다.

Editor 김슬 dew@univ.me

수컷의 방을 사수하라 수컷들의 사이다

아내의 등짝 스매싱이 무서워도 어쩔 수 없다. 자기만의 취미를 반영한 공간은 수컷들의 일생일대의 로망이니까. 그들이 꿈꾸던 공간을 <수방사>가 만들어준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기에 의뢰인들은 '집 포기 계약서'에 동의해야 한다. "집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고 아내가 뒷목을 잡고 쓰러져도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 다소 과격하긴 해도 자신의 공간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집 한 칸에 딱하니 낚시터, 캠핑장, 야구장이 생긴 걸 본 남편들의 동공 역시 흔들리긴 마찬가지. 마침내 아내가 집으로 돌아와 바뀐 집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는다. 어?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다. 남편의 어이없는 행동이 귀여운지 피식 웃고 취미를 인정해주기까지 한다. 같이 마음 졸이던 전국의 남편들이 부러움 섞인 사이다를 느꼈다는 후문. XTM에서 11월 10일부터 정규 방송.

Reporter 배대원 bdw1707@naver.com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짜증 나는 사람이라도, 그의 입장에 서봐야 한다고 배웠다. 왜냐, 우리는 본능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 아니라 이성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교양 시민이니까(두둥) 하지만 영화 <바스터즈>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을 비롯듯, 부정적에는 부정적으로 맞서는 것이 얼마나 통쾌한지 보여준다. 바스터즈 특공대의 목표는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에게 복수하는 것. 더 직접적으로 말해 그들을 죽이는 거다. 클리셰 따윈 개나 주라는 듯 거침없이 적을 찢르고, 쏘고, 태워 죽이는 모습을 마주했을 때 드는 감정은 의외의 카타르시스다. 그리고 그동안 믿어왔던 '정상'의 기준에 대한 의문이다. 폭력은 나쁜 거라지만, 유대인을 사냥감으로 여겼던 나치에게도 보통의 상식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걸까? 선과 악의 기준을 그려온 지배계급의 판단 기준은 얼마나 정당한 것일까? 속을 뺨 뚫어주면서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원칙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진정한 B급 영화의 역할이 아닐까. Reporter 김송미 songme920226@gmail.com





미팩토리 3단 돼지코팩

이순신 장군의 후예들을 위해

언제나 진정한 적은 내부에 있는 법. 화사한 피부의 적, 피지와 블랙헤드 역시 우리의 코 안에 숨어 있다. 이를 섬멸함에 코팩만큼 빠르고 효과적인 무기가 있을까. 떼어낼 때의 쾌감을 상상하며 이 글을 읽어보시라. SNS에서 소위 '거북선 인증 대란'을 몰고 온 이 3단 코팩은 기존의 한 장짜리보다 레벨이 세 배나 높다. 거북선? 레벨 차이? 3단계의 스텝을 천천히 따라오다보면 자연스럽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다. 스텝 원! 모공 히트 패치로 숨어 있는 적들에 네이팜 탄을 뿌려라. 놈들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 거다. 스텝 두! 본격적인 섬멸 작업을 위한 패치 착용. 놈들을 뿌리째 뽑아내 준다. 스텝 쓰리! 전쟁이 끝난 모공을 다시 달아주는 패치로 마무리. 참 쉽죠? 단계별 각 15분이 지나면, 당신의 눈앞에는 적들의 시신으로 뽕뽕뽕뽕 무장한 거북선 한 척이 웅장하게 위용을 드러내고 있을 것이다. 뿔들 하느냐? 다들 출정하라! 1장에 2400원.

Reporter 공태웅 dnriver@naver.com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시죠

타는 목마름으로 불러본다, 취향의 민주주의어

저자 이수진
출판 웅진지식하우스
가격 1만 3000원



취향은 한 인간의 뿌리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들으며 차곡차곡 쌓은 내공으로 우리는 저마다의 개성을 갖춰간다. 때문에 취향에 대한 경솔한 판단은 곧 개인의 정체성에 행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 소설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시죠』는 평범하다는 이유로 연인에게 버림받은 인물 '한'의 이야기를 앞세워 취향의 권력화를 꼬집는다. 옛 연인을 찾아 참석한 애모인 정기모임에서도 멸시를 받은 그는 취향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클럽 안티 버틀러'에 가입한다. 이때 '안티'의 대상은 고양이 아닌 집사, 즉 특권 의식에 빠진 '버틀러'들이다. 이들은 '애모인'이라는 취향을 마치 정치적 지위인 양 이용하는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계락을 모의한다. 차진 입담에 책장은 빠르게 넘어가고, 무엇을 좋아한다 혹은 싫어한다는 이유로 핀잔 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가슴 가득 통쾌함이 차오른다. '베리베리스트로베리' 맛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타박하던 친구야, 잘 지내니?

Reporter 김유진 kj379@naver.com

대학내일 맘대로 뽑은

이주의 영화 Best 3

Reporter 김유진 kj379@naver.com



아멜라인: 멈춰진 시간

감독 리 톨랜드 크리거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멈춰버린 시간. 아름다운 아멜라인의 이면에 깃든 외로움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영원이 얼마나 공허한가를 보여준다. 반대로, 이 넓은 우주의 광활한 시간 속에서 유일한 인간으로 산다는 일. 그 소박한 축복이 러닝타임 내내 찬란히 빛난다. 멜로의 겉모습을 하고 인생에 대한 성찰을 건네는 모습이 꼭 29살의 외모를 가진 107살의 노인, 아멜라인과 닮았다.

1

27

2



트랜스포터: 리폴드

감독 카밀 들라마레

90분짜리 아우디 광고를 보는 느낌인데, 이상하게 지겹지 않다. 납치되는 아버지(넌뒤도 알아서 탈출할 양반 같지만)를 구하기 위한 스피드 레이싱! 추적 장면의 긴장감보다는 급박한 상황에서 유머를 잃지 않는 부자의 역살이 더 기억에 남는다.

서바이버

감독 제임스 맥테이크

〈레지던트 이블〉의 쟁쟁걸 밀라 요보비치가 '쫓기는 역할'이라는 점이 신선하다. 총질과 주먹질 가득한 할리우드식 액션보다는 누명을 입었다 벗었다 하며 존각을 닦는 긴장의 런웨이에 가깝다. 보안국 행정직원의 투철한 직업 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Reporter 위지영 hi_wjy@univ.me

3

Family :

가족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

입양에 관해
우리가 생각해볼 것들

※국내입양정보(2013~2015) 참고

입양 ADOPTION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

25

입양자격은 25세 이상이며, 아동과 연령차가 60세 이내여야 한다.



3개월~1세 미만

태어난 지 3개월에서 1세가 지나지 않은
아이들이 가족을 만난 경우가 가장 많았다.
418명의 아이가 돌을 넘기기 전에 새로운 가정을 찾았다.

11

2015년 6월 기준, 총 11곳의
입양 기관이 아이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동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보건
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홀트
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
회,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한국사회봉사회 등
과 시도의 허가를 받은 기
관이 활동 중이다.



637

2014년, 637명의 아이가
국내 입양됐다. 국내입양
아동 중, 남자아이는 223
명이었고, 여자아이는 414
명이었다.

535

남자 438 여자 97

국내에서 가정을 찾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해 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도 많았다. 535명의 아이가 국외입양됐다. 그중 남자아이는 438명으로 여자아이 97명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2014년, 412명의 아이가 미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국외입양의 77%에 해당하는 수치다.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이 뒤를 이었다.

입양 후 1년

입양 후 1년 동안 입양기관 담당자는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의 적응 상태를 관찰하고 돕기 위해 4회 이상(최소 2회는 가정방문) 입양가정을 살핀다.



5월 11일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했다. 입양의 날은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입양은 아동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존중

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

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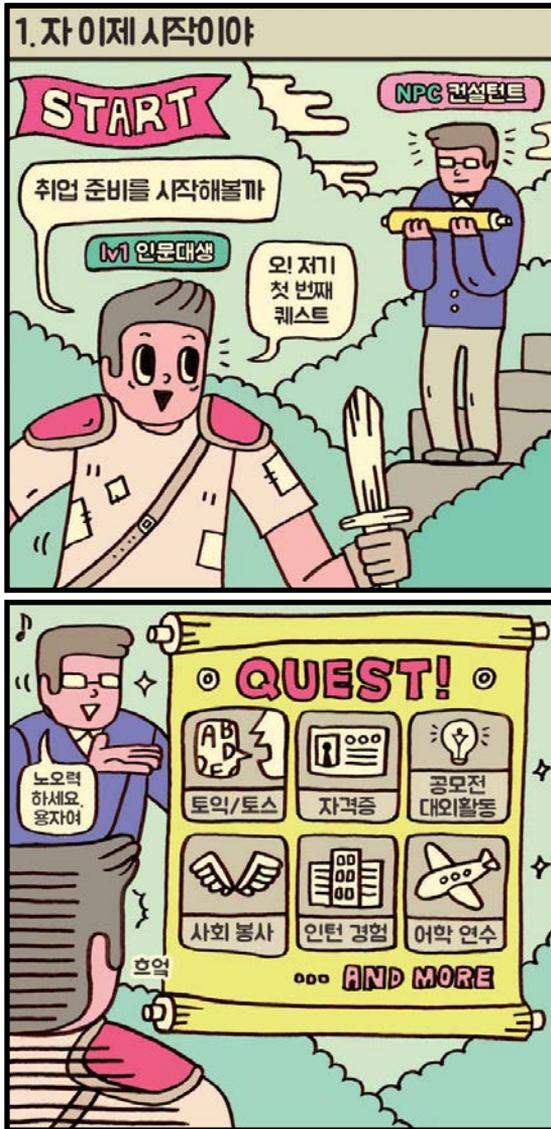
국내입양 아동출생 ...> 친생부모의 숙려기간(일주일) ...>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 가정법원의 허가 ...> 입양성립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Issue:

인문너즈 워

문과생이 취업 전까지 쓰는 평균 교육비 161만원. 취업생이 1인당 보유한 스펙은 평균 5.2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문송합니다'를 외쳐야 할까? 여전히 끝나지 않는 문과생의 취준. 우린 과연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Editor 김진환 조아라 ahrajo@univ.me Illustrator 유승서



Ready go!



May I help you?

“죽도록 뛰어야 제자리에 있을 수 있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붉은 여왕의 말처럼, 불길히 치솟는 취업전에서 살아남으려면 달려야 한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 따르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취업준비 TOP5로 토익(70.6%), 자격증(62.7%), 학점(60.2%), 공모전 및 대외활동(49.3%), 토익 외 어학성적(46.8%)이 꼽혔다. 오늘도 취준 커뮤니티엔 이런 글이 올라온다. “제 스펙으로 될까요? SKY 국문과/3.9/토익 940/한국사 1급/컴활 1급/교환학생 1년/JLPT 2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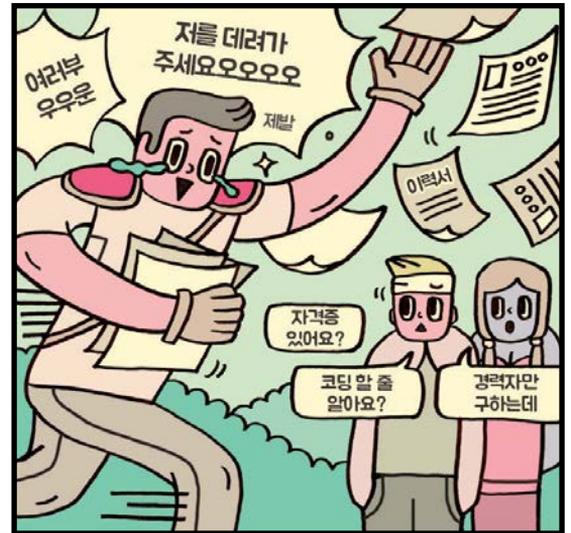
중·고등학생 때로 끝날 줄 알았던 ‘학원의 추억’. 하지만 끝날 때가 된 끝난 게 아니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 조사 결과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취업 준비를 위해 쓴 평균 교육비는 161만원. 한편 상경계열 학생은 114만원을, 자연·이공계열 학생은 109만원을 썼으니 문과생이 사교육에 50만원을 더 쓴 셈이다. 형편이 여유로워서 더 쓰는 것은 아닐 터. 토익·토플 같은 외국어 자격증부터 대기업 인적성 준비, 면접 대비까지 학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확률을 높이려는 의지 때문이다. 하지만 학원에 다녀도 점수는 제자리를 맴돌고, 스피치 학원에 다녀도 말발 안 늘어나는 게 함정이라는.



Come back



“소원이 뭐니?” 꿈속에서 요정이 내게 물었다. 나는 말했다. “첫째는 대입 원서 접수 날로 돌아가 다른 학과를 쓰는 것이요, 둘째는 고딩 때로 돌아가 이과를 선택하는 것이고, 셋째는 어릴 때로 돌아가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요정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럴 거면 왜 물어본 걸까? 어쨌든 난처한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던 모양.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54.2%가 “다시 대입 시기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전공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말이다. 이유는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지금의 씁쓸함은 절대 맛보지 않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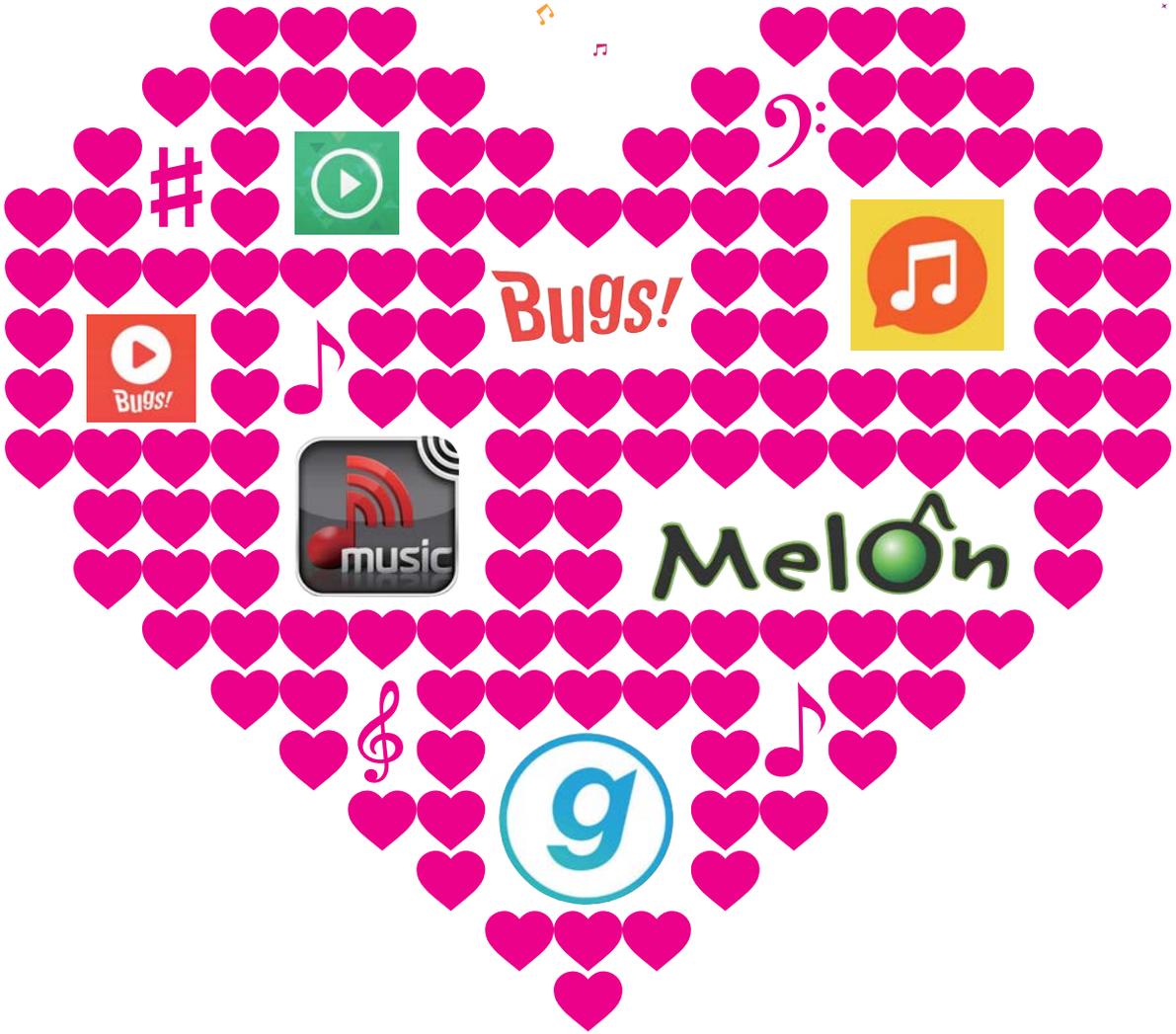


Please

공학 지식과 코딩 실력으로 무장한 ‘취업강패’가 아니라면, ‘문송합니다’를 삼장하면서 취준하는 게 현실. 전공에서 곧바로 연결되는 직업군이 많지 않기에, 문과생들은 전공과 무관한 직무에 지원하는 일이 잦아서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설문 결과를 보면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66.7%, 상경계열의 51.5%, 자연·이공계열의 37%가 전공과는 상관없이 지원했다고 한다. 기업에선 이공계열을 선호하고, 그나마 문과생을 위해선 영업이나 마케팅·경영지원·인사 쪽에서 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죽도록 달린다. 남들 하는 만큼이라도 하기 위해서.

- 조사 기관: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 조사 대상: 전국 20대 남녀 500명
- 소요 기간: 2015.9.22~24 (3일 간)
- 조사 방법: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세베이

Culture:



사랑한다면 음원강패처럼

강패는

아무나 하나

한때 인기 뮤지션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는 '밀리언셀러'였다. 김건모, god, 조성모 등 쉽게 넘볼 수 없는 고지인 '100만장'을 점령한 몇몇만이 그 영광스런 수식어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토토가 열풍'을 굳이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만남', '춧불하나', '아시나요' 등 당시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던 메가 히트곡들은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CD 열 장 살 돈으로 MP3플레이어를 사기 시작하면서 '밀리언셀러'는 죽은 말이 됐다.

'밀리언셀러'에 상응하는 2015년의 수식어는 '음원강패'다. 이 말에는 음원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최근의 소비 패턴이 반영돼 있다. 이제 가요계 강자를 추대하는 기준은 음반 판매량도, 가요 프로그램 1위도, 연말 시상식도 아닌 음원 차트 순위다. 매주 매일 매시간 업데이트되는 차트의 특성상 음원강패가 수시로 바뀐다. 또 엄청 많다. 매주 매일 매시간 다른 이름의, 다른 스타일의 음원강패가 등장한다. 그 시절의 가수들이 각각 독특한 목소리로, 친근한 이미지로, 드라마틱한 스토리로 '밀리언셀러'를 달성했듯 이들 역시 각자 자신만의 비법을 하나씩 품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음원강패'라는 말로 얼버무리는 대신 그들의 비법을 5가지로 정리했다.

그런데 정리하고 보니, 꼭 음원강패에게만 적용되는 비법들이 아니다. 살 빼고 책 읽고 옷 사고 염색하고 점까지 봐도 '안 생기는' 연애고자들에게 하나같이 피와 살이 될 명제들이다. 일단 자주 눈에 띄는 것, 남들에게 없는 매력을 극대화할 것,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될 것, 유행에 뒤처지지 말 것.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힌트 이럴 거면 꺼내 먹지 말지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누군가의 최고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기 분야에서 탄탄한 내공을 쌓는 것이 우선이다



한 분야에서 내공을 탄탄히 쌓아라

사랑 받지 못할 신은 없다

기획사의 과도한 마케팅과 음원 사재기 논란이 음원 시장에 얼룩을 묻히고 있지만, 몇몇 가수들이 출시한 싱글은 조용히 오랫동안 차트 꼭대기에 머문다. 그들의 무기는 특별할 게 없다. 뛰어난 가창력이 전부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수가 사랑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다. 탁월한 노래꾼들은 화려한 비주얼이나 자극적인 퍼포먼스, 시끄러운 스퀘드 없이 그 목소리만으로 존재감을 확보한다. 나얼의 '바람 기억'이나 박효신의 '아생화'는 발표되자마자 당연하다는 듯 정상을 탈환했고, 홍보성 방송 출연 없이도 오랜 시간 음원 차트 상위권에 머물렀다. 그들은 탄탄한 노래 실력을 기반으로 발라드라는 분야에서 성실하게 커리어를 쌓았고, 결국은 최고라는 수식어를 나눠 갖게 됐다. '신(혹은 god)'으로 추앙 받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음원강패'라는 표현이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다. 그들의 노래에 취한 우리는 라이브를 들 때마다 귀뿐만 아니라 입도 반쯤 열게 된다.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전에 입장할 수 있는 하이패스를 발급 받은 것은 아니다.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 또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 토하는 노력을 거듭했을 것이다. 왕관을 쓰려는 자는 언제나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누군가의 최고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기 분야에서 탄탄한 내공을 쌓는 것이 우선이다.

Reporter 공태웅 dnriver@naver.com



음원 사이트에서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금세 지루함을 느끼고 다른 음악을 찾아 나서기 쉽다. 짧은 시간에 이들의 감각을 사로잡으려면 '호기심'과 '긴장감'을 유발해야 한다. 익숙한 목소리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목소리가 흘러들면, 조화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 여기에 성적 긴장이 더해지면 효과는 두 배. 이러한 이유로 남자과 여자, 혹은 래퍼와 보컬의 콜라보레이션이 꾸준히 인기를 얻어왔고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예컨대 씨스타 소유는 깁스, 홍대광, 정기고, 어반자카파, 최근 십센치 권정열에 이르기까지 파트너를 바꿀 때마다 음원 순위를 점령하는 콜라보의 여신으로 등극했다. 매드클라운 역시 소유를 비롯해 씨스타 효린, 요조 등과 작업하며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얻었다. 매드소울차일드 진실과 함께한 '화는 10개 음원 사이트 1위를 동시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산이가 15&, 레이나와의 콜라보를 통해 엄격한 '산선생님'에서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는 오빠로 거듭난 것도 잊지 말자.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는 자가 대중의 사랑을 쟁취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유행을 따르는 것은 금물이다.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감각적인 사람과 따라쟁이의 차이는 '박수 받는 진보'와 '외면 받는 진부함' 사이의 그것과 같다. 비단 연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랑을 이루고 싶다면 추세를 살피는 데 온 감각을 집중시켜라. 크롭니트티나 투블록 머리만 중요한 게 아니다. 유행은 근사한 장소, 취미, 유머 코드 등을 포괄한다. 그중 당신만의 분위기와 어우러지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취하길 바란다. 곳곳에서 당신의 수많은 클론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Reporter 임현경 hyunk1020@gmail.com

유행은 근사한 장소, 취미, 유머 코드 등을 포괄한다
그중 당신만의 분위기와

어우러지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취하길 바란다

트렌드를 무시하지 마라

유행 사냥꾼이 곧 사랑꾼





자기 매력이 뭔지 알고 가꾸는 일은
찰나의 치장과 연습한 멘트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극강의 스킬이다



자기만의 매력을 극대화하라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나만의 매력은 곧 누구라도 끌어당길 수 있는 마력이 된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수많은 참가자 중 하나였던 버스커버스커와 악동뮤지션이 정식 데뷔 이후에도 꾸준히 음원 강자로 사랑 받는 데에는 그들만의 매력이 통했기 때문이다. 버스커버스커의 노래는 사실 새로울 게 없다. 새로운 사랑에 설레고, 이별에 아파하고, 편곡이나 장범준의 가창력이나 특별한 구석을 찾기 힘들다. 그러나 버스커버스커만의 매력에 빠진 우리는 원가에 홀린 듯 그들의 노래를 플레이한다. 봄이 오면 '벚꽃 언덕'을, 여수에선 '여수 밤바다'를. 귀엽고 뽀뽀한 사춘 동생들의 수다 한 토막을 귀로 듣는 듯한 악동뮤지션은 어떤가. 아이와 어른의 경계에 선 이들은 그 나이대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미완성처럼 들리는 그들의 노래는 오히려 새로웠다. 어른들은 왜 그렇게 '얼음들' 같은 물음에 미안해지고, 반복되는 후렴에 나도 모르게 꼬았던 다리를 풀게 된다. 몽골에서 자랐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지 않고도, 음악만으로 그들은 이미 특별했다. 평범한 차림새로 처음 등장했던 이 두 팀은 어느 뮤지션보다 독특한 개성을 무기로 음원강패가 됐다. 이렇듯 자기 매력이 뭔지 알고 가꾸는 일은 찰나의 치장과 연습한 멘트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극강의 스킬이다.

Reporter 김유진 kjy379@naver.com



사실 최고의 음원강패는 TV다. 방송에서 화제가 된 노래들은 다음 날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곤 한다. 얼마 전 <무한도전> 가요제에 출연했던 혁오의 방송 전까지 하도 아는 사람만 아는 인디 씬의 유망주에 불과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간 후, 순식간에 '차트 줄 세우기'를 하는 음원강패가 됐다.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쇼미더머니>는 어떤가. 시끄러웠던 여론과 별개로 '독기', '연결고리'와 같은 노래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차트에서 내려올 줄 몰랐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이 부른 노래가 원곡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K팝스타> 시즌4에서 정승환과 박윤하가 부른 듀엣곡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는 방송 직후 2시간 만에 10여 개 음원 차트를 점령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처럼 방송에 나온 노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요인은 '보여준다'는 점이다. 음원 파일 대신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려주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던 부분들까지 충분히 드러낸다. 제스처, 무대 장악력, 인간적인 면모 등 노래 외적인 부분들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듣기만 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음악이다. 우리가 매일 골머리를 앓는 사랑도 크게 다르지 않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말로 들려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좋아하는 이의 눈을 카메라 렌즈 삼아 자신을 끊임없이 어필해야 한다. 일단 무조건 그 사람 눈에 자주 띄어야 하고, 번지르르한 말로 포장하는 대신 믿음직한 행동으로 보답하자. 수백 마디 말보다 진심 어린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을 연애강패로 만들어줄지도 모른다.

Reporter 배대원 bdw1707@naver.com

무조건 그 사람 눈에 자주 띄어야 하고,
번지르르한 말로 포장하는 대신
믿음직한 행동으로 보답하자

자주 눈에 띄어라

자꾸 보다 보면
보인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라

사랑을 위한
첫 번째 준비물,

이해

한 번 종난 관계, 잘잘못을 따져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헤어짐의 원인을 찾고 싶어 한다. 파고들수록 질문은 늘어가고 해답 아닌 원망만이 쌓여간다. 그리고 원망과 후회의 종착역엔 “이럴 거면 왜 시작했지?”라는 씁쓸한 질문만이 남게 된다.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를 들으며 내 얘기 같다고 생각했다. “사랑스럽게 날 보던 눈빛”부터, “넌 어떻게 하고 싶니?”라고 묻던 그의 마지막 질문까지. 나를 좋아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쉽게 식어버린 것에 대한 서운함과, 사그라진 그의 맘을 돌릴 수 없었던 답답함까지. 입 밖으로 내 본 적 없던 나의 기분을 조곤조곤 노래하는 이 가수의 음악이 그냥 너무 좋았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를 이해하는 것만 같았던 그 사람이 그냥 너무 좋았던 것처럼. 그리고 생각했다. 헤아림을 받는 데만 익숙해져, 그의 맘을 헤아리는 데 소홀한 건 아니었는지. ‘이해’는 쌍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닌지. 연인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쌍방향 이해의 불문율은 뮤지션과 리스너들 사이의 관계에도 해당된다. 백아연의 노래가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 좋았다면, 자이언티에게는 그를 이해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 ‘양화대교’에서 그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향한 애뜻함을 얘기한다. ‘꺼내 먹어오’에서는 아끼는 사람의 힘든 일상을 조용히 응원한다. 내 아버지는 택시 기사도 아니셨고, 매일 별 사랑을 사다 줄 정도로 다정한 분이 아니셨지만 “행복하자”고 잔잔히 노래하는 그의 맘은 충분히 이해된다.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은 기분.” 아스라한 이 감정 역시 손에 잡힐 만큼 생생하게 전해진다. “바라는 게 더럽게 많은 나”지만, 이젠 “사랑, 사랑 비슷한 걸” 할 준비가 된 것 같다. 아침, 점심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그를 위해 아침 사과 같은 이 노래를 먼저 꺼내주고 싶어지니 말이다.

Reporter 김숨미 songme920226@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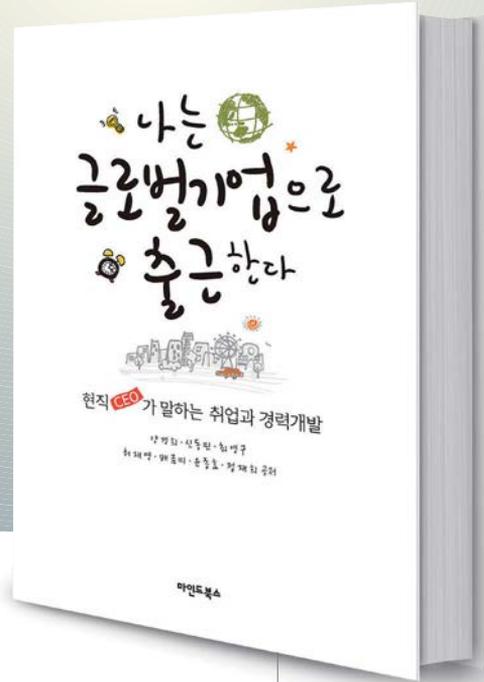


헤아림을 받는 데만 익숙해져, 그의 맘을 헤아리는 데 소홀한 건 아니었는지.

‘이해’는 쌍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닌지.

지금 밟고 있는 땅만이 미래는 아니야

Intern 손수민 sum@univ.me



나는 글로벌 기업으로 출근한다

어렸을 때, 외화에 등장하던 직장인들을 보며 '저 아저씨 머시씨!' 하던 때가 있었다. 나이를 먹고 나니 저 아저씨는 '저 남자가 되어 더 멋있고 '섹시하게' 느껴졌다. 그렇다. 예나 지금이나 본인의 무대를 세계로 넓혀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요즘엔 글로벌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 우리도 이 매력을 장착(!)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책에는 그 가능성을 함께 높여줄 7명의 멘토가 등장한다.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그들은 심지어 모두 CEO다. 몸담고 있는 분야도 저마다 달라 7개의 업종에서 그들이 느끼고 배운 점들이 기록돼 있다. 수기 형식이라 어떤 이야기들은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이야기들은 뻘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터. 그래서 저자들은 에필로그에서 미리 밝혀둔다. "독자가 하나하나 작은 돌을 들추어 보듯이 책 속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작은 울림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면 충분히 보람된 일이다." 하지만 읽다보면 '그들의 잘난 점'을 확인하는 것만큼 '그들과 나의 공통점'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하라고? 나도 정리만 되면 관찮게 써먹을 수 있는 생각들이 많은데! 인맥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어, 나 친구 별로 없으면서도 있는 친구들한테 최선을 다하는데! 사랑하는 그녀 때문에 영어를 배웠다고? 나도 토익 학원에서 남자친구 사귀었는데! 이런 식으로 공통점을 찾으면서 읽다보면 저자들의 성공 노하우가 얼마든지 내 성공 노하우도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렇게 글로벌 워킹킹이 되고, 또 그렇게 섹시해지는 거 아니겠어.

막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해외 취업에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선배들이 나섰다.

글로벌기업에
다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고 보면
해외 취업도
막막한 일만은
아닌 걸
알게 될 것이다.



솔직한 글로벌 언니의 열정 토크

폐북을 컸다. 해외여행 중인 친구들의 사진이 타임라인을 도배하고 있다. 경제적 여건으로 여행을 제대로 못 다닌 나는 친구들이 마냥 부럽다. 이런 내게 해외 취업은 순전히 남 이야기인 것만 같다. 하지만 이에 맞서 책의 저자인 릴리는 말한다. "돈은 없는데 해외에 나가고 싶다고? 그럼 남의 돈으로 가면 되지!" 그녀는 곧 자신의 '남돈, 외남의 돈으로 외국 나가기' 노하우를 설명한다. 그렇게 성사된 첫 해외 진출은 그녀의 첫 번째 경력이자, 앞길을 열어주는 문이 됐다. 릴리는 덧붙인다. "남의 조언은 참고만 하고 본인의 목표를 이뤄줄 모든 방법을 모색해봐!" 신기하게도 정말로 그녀는 그 방법들을 잘 찾아낸다. 집안이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았고, 그 덕에 더 즐거웠다고 말한다. 자신감과 실행력이 준비된 나와 그대여. 우린 돈이 없지, 가오는, 아니, 이 책은 있다.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말고 먼저 릴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혹시 취업하기에
이 땅이 너무 좁다고
생각된다면
이 책과 함께 하시라
그리고 다양한
취업 시장에
문을 두드려보시라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어떻게 기본을 실천할까

기본이란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꾸준히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다. 엄마가 분명 치약은 끝에서부터 짜라고 했지만, 나는 통통한 똥통 부분을 자꾸 누른다. 옷도 아무데나 벗어놓지 말라고 하는데 정성 차리고 보면 옷이 항상 얽힌 데에 놓여 있다. 그럴 때마다 '넌 한참 멀었어. 기본이 안 돼 있잖아'란 소리가 들려온다. 나도 기본이 무엇인지 알긴 안다. 다만 몸이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을 뿐. 이런 예를 들어 이 책을 설명하는 건, 책의 내용이 단순히 글로벌 비즈니스에만 유용할 '기본 실천법'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꿀을 갖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저자가 소개하는 주도적이며, 조직에 잘 어울리는 인간형에 가까워지면 엄마가 내게 기본 운운하며 쓰아대는 잔소리에도 멋있게 응수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생긴다. 물론 처음부터 조직의 조화를 깨뜨릴 사람이 되지 않을 것도 같고!

※ 주의: 그렇다고 엄마에게 "어머님, 저는 오로지 저와 경쟁합니다. 제 못난 행실을 제가 똑바로 마주하고 끝내 물리칠 수 있도록 지켜봐주세요!"라고 말했다간 주적이 날아올지 모르.

Picture:



◀ oleh KT 광화문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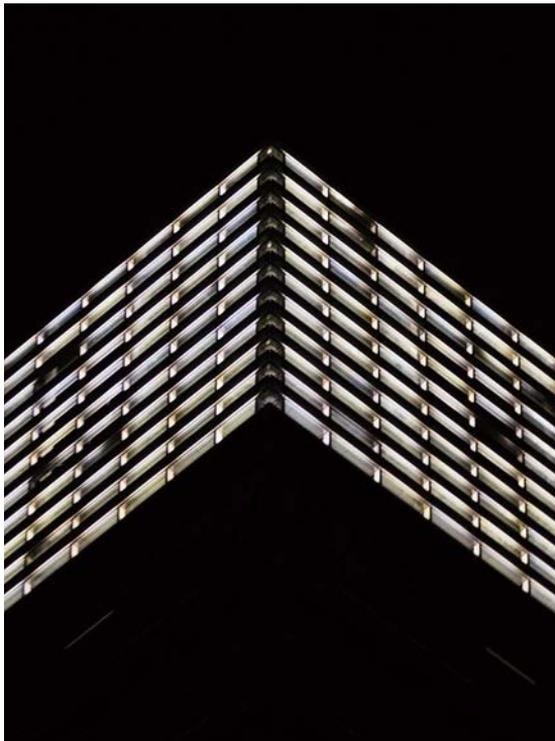


서울중앙우체국 ▶



38

▼ 광화문 D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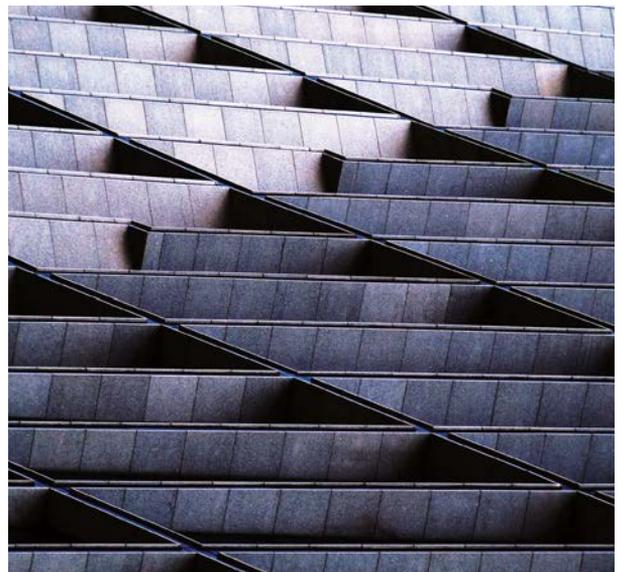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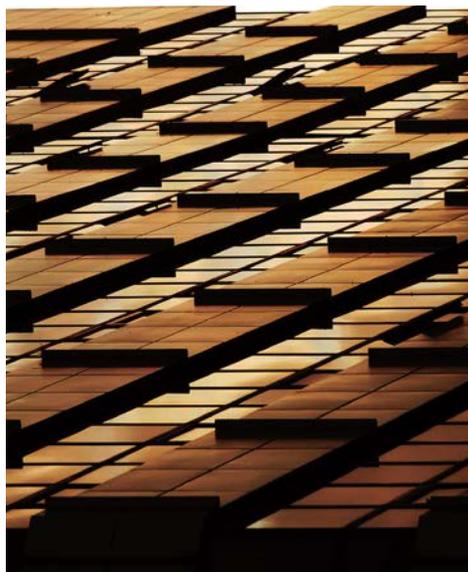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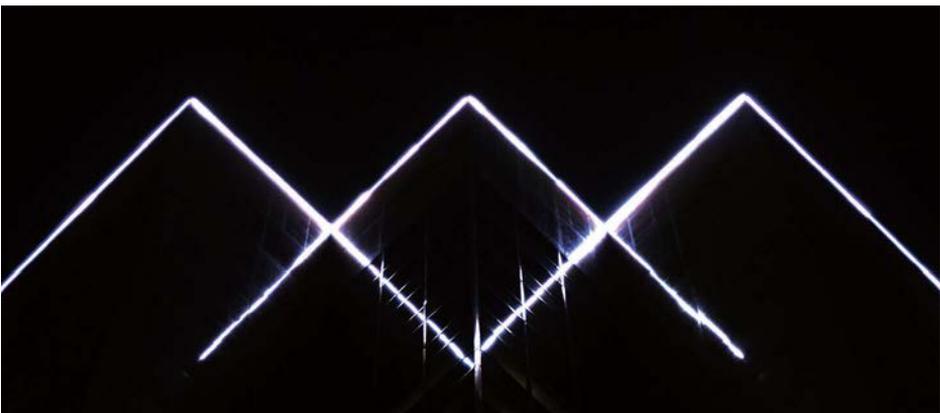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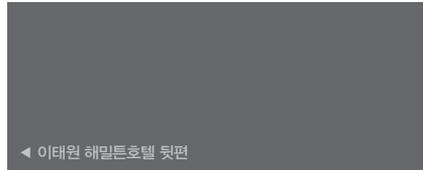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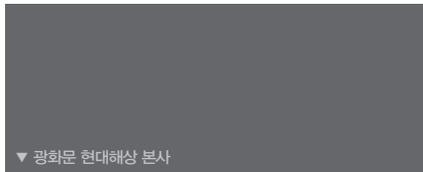
우리는 몰랐던 도시의 아름다운 패턴 8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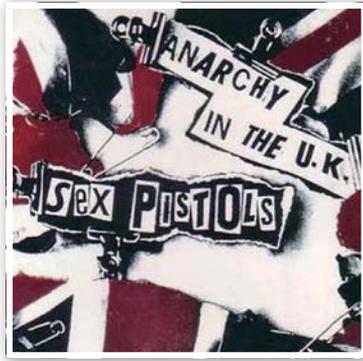
“카메라는 세상에 숨겨진 질서를 발견하는 도구.”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말이다. 쟁걸음으로 매일 지나치기만 했던 회색 도시에게도 숨겨진 질서가 있다. 고개를 들어 두 눈으로 도시의 무늬를 발견하는 재미, 오늘부터 느껴보시라.

Photo Reporter 오주석 govil603@naver.com

스태이트타워 남산 ▶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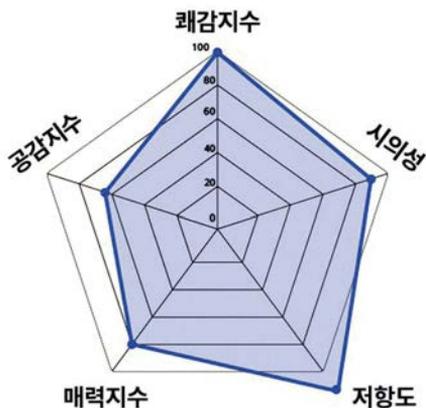
SEX PISTOLS Anarchy in the UK(1977)

섹스 피스틀즈는 독심 있는 반골 기질로 무장한 밴드다. 그들은 당시 대영제국을 '무능한 개의 똥덩이'로 비유한 데뷔 앨범 〈Never mind the bollocks/spunk〉을 발매하며 폭기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또한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25주년에 맞추어 선동적인 가사로 범법한 곡들을 차례로 발표했다. 섹스 피스틀즈가 데뷔한 당시는 영국이 오일 쇼크로 인해 경제위기(IMF)를 겪었던 때다. 당연히 실업률은 높았고, 청년들은 이 암울한 밤을 섹스 피스틀즈의 음악에 취해 지새웠다. 그들은 "잘난 XX들은 다 뉘져버려!"라고 외쳤다. 섹스피스틀즈의 활약으로 펑크 음악은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40

Words

oh get pissed and i wannabe anarchy
오공을 갈겨버려, 난 무정부 상태를 원해.
anarchy, now
무정부 상태, 당장!



당신에게 바친다 · 글로벌 청년실업 현정 뮤직 4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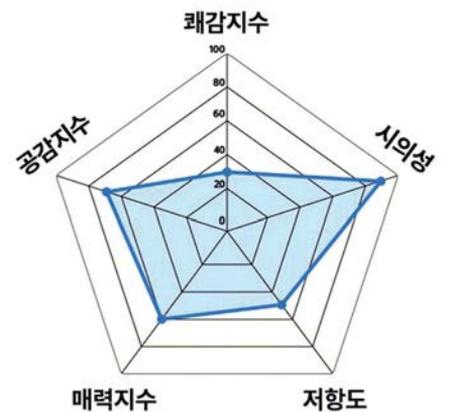
1980년대

RUN DMC Hard times(1984)

런디엠씨가 〈Hard times(불황)〉를 대중에 공개한 때는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을 집권하던 시기다. 이때엔 국민총생산이 2.5%로 하락하고, 실업률은 10%까지 치솟았다. 그래서 그들은 "불황은 끝없이 삶을 옥죄어 오지만, 열심히 살라"는 친구의 조언을 음악에 담았다. 쉬지 말고 일하라, 게을러지지 마라, 항상 긴장하라 등의 파이팅 넘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것. 하지만 제도 개선보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므로 쾌감 및 매력도는 떨어진다.

Words

Hard times, Hard times
불황이고, 불경기야
Hard times are coming to your town
불황이 너네 동네까지 찾아갈 거야
So stay alert, don't let them get you down
그러니까 경계를 늦추지 말고 거기에 쓰러지지 마
I'm gonna keep on fighting to
my very last breath
나는 죽을 때까지 불경기와 싸울 거야





19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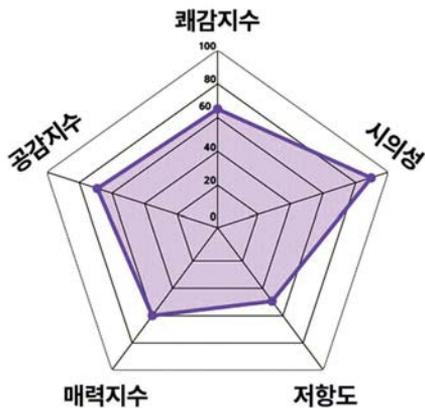
THE VERVELS

Bitter sweet symphony(1997)

일하지 않으면 내일 먹을 빵을 걱정해야 하는 근원적 문제를 비판한 곡이다. 국가 경제가 정상 궤도로 진입하니 삶의 질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가사에 등장한 것이다. 그들은 "평생 노예처럼 일만 하다 죽는 게 무슨 소용이나"고 외친다. 하지만 참고로 한국은 근로자 근속 연수 5~6년, OECD 국가 중 꼴찌이므로 평생 일하다 죽을 일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면 해당 곡 가사는 경제구조에 비판적 견해로 구성됐는데, 국내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자주사의 광고 음악으로 사용돼 일부 팬들에게 비웃음을 샀다.

Words

'Cause it's a bittersweet
symphony this life
달콤 씹살한 교향곡이지 이 인생은
Trying to make ends meet,
you're a slave to the money then you die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너는 돈의 노예로 살다 죽어버리네



양질의 직장 연기가 예상일어 아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2월 청년층(19~29) 실업률이 11%로 국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수치는 1978년 오일 쇼크 여파로 미국이 공장 문을 닫고 근로자들을 방출했을 당시의 실업률(10%)과 비슷하다. 그야말로 오늘날의 고용시장의 어렵디려운 시절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아픈 건 그때의 젊은이들이 하던 푸념과 하스연애 공감할 수 있다. 그래서 준비했다. 우리보다 고생했거나 혹은 더 고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2000년대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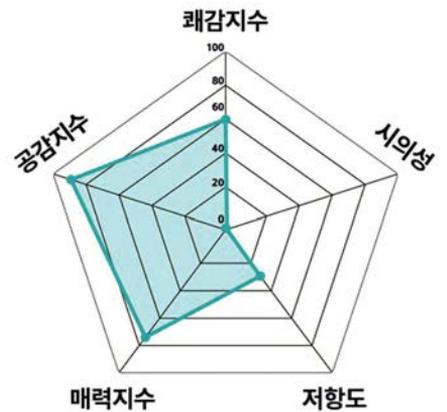
청년실업

쓸데없이 보냈네(2008)

이 곡은 반복된 취업 실패를 비판한 자살과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지상파 뉴스 프로그램에 막 등장하던 때에 나왔다. 또 이 때는 국내 인디 음악 신에서 청년실업과 고용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때다. 도무지 하는 일이란 '먹고 싸는 거밖에 없다는 내용의 가사가 인상적이다. 이토록 의욕 없고 허무한 젊은이들의 삶을 온전히 보컬 능력으로 표현한 점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 시의성이 1 점인 이유는 조만간 박근혜 정부 창조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Words

아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게
바쁘게 보냈네
아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게
쓸데없이 살았네



초보자도, 악필도 할 수 있다 캘리그래피 체험기

최근 '캘리그래피' 열풍에 휩싸여 무작정 만년필과 예쁜 스케치북을 사버렸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빈 스케치북만 바라봤다. 그래서 직접 배워보기로 했다. 캘리 초보자를 위한 책 『손따라 마음따라 캘리그래피』의 저자 정원재 작가를 찾았다. 캘리그래피에 관심도 있고 하고는 싶은데 막막했던 이들에게 모든 팁을 전수하려 한다.

Editor 김효은 hiho@univ20.com Intern 위지영

3 ㄹㄹㄹㄹ ㅂㅂㅂ
ㅇㅇㅇ

4 가나다라
가나다라



우선 종이와
펜을 준비하고,
이 글을 보며
천천히
따라해보자

STEP 1 초보자라면 만년필보다는 에딩펜

캘리그래피 도구는 다양하다. 붓, 마카, 만년필 심지어 나뭇가지도 도구가 될 수 있다. 모두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지기란 쉽지 않다. 정원재 작가는 캘리그래피 입문자들을 위해 '에딩펜 143B'를 추천한다. 마카보다 얇고 펜 팁이 딱딱해서 초보자들도 글씨 쓰기가 쉽다.

STEP 2 욕심을 버리고 획 굵기부터 자음, 모음 연습하기

마음같아서는 당장 멋들어진 문구를 쓰고 싶겠지만 그 마음은 잠시 접어두자. 캘리그래피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펜 잡는 법과 획 굵기다. 에딩펜은 팁이 넓적한데, 이 부분을 가로로 하고 뾰족한 부분을 왼쪽으로 향하게 잡아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수평과 수직을 맞춰 자음, 모음 획기 연습을 하자.

STEP 3 나만의 자음 모양 정하기

한글은 다양한 획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모양 변환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사람마다 필체가 다른 이유는 이것 때문. 특히 ㄹ, ㅂ, ㅁ 등 자음의 모양을 색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자음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모양을 정해보자. 주의할 점은, 한 문자 내에서는 같은 모양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STEP 4 모음 위치만 바꿔도 귀여움 100 상승

이번엔 모음에 변화를 줘보자. 모음의 위치를 살짝 위로만 올려도 더 귀엽고 생동감 있는 글자를 쓸 수 있다. 하지만 쓰다 보면 모음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으니 한 자 한 자 의식하며 쓸 것. 모음의 길이와 위치를 다르게 하면 자신만의 느낌 있는 글씨체를 만들 수 있다.



산부인과 가는 여자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산부인과에 갔다. 그 자리에 나 말고 젊은 사람들은 없었다. 옆사람들은 나를 잔하게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에선 이런 말이 들려 오는 듯했다. “결혼도 안 한 아가씨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는 안될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다. 건강한 여성이라면 1년에 한번씩 자궁암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일. 우리는 귀찮고 민망해서 이 의무를 쉽게 저버리곤 한다. 눈에 안 보이는 자궁 건강을 챙기고, 언제 생길지 모르는 여성질환을 막으려면, 당신도 ‘산부인과에 가는 여자’가 되어야 한다.

Editor 조아라 ahrajo@univ.me Intern 손수민 Illustrator 위지영

FACT 우리가 몰랐던 자궁경부암의 진실



01

성관계를 시작하는 젊은 여성들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에 걸리기 쉽다. 국립암센터와 대한부인종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8~29세 여성 2명 중 1명이 HPV에 감염됐다. 남녀 10명 중 8명은 일생에 한 번씩 걸릴 만큼 흔한 바이러스다.

02

HPV가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다.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이기 때문이다. 자궁경부암 환자의 99.7%에게서 HPV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03

물론 HPV에 걸린다고 꼭 암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고위험군 HPV(16형과 18형)에 감염되면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HPV에 감염되면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든 또다시 감염될 수 있다. 반복해서 감염되면 암이 생길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04

비단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을 일으킬 수도 있다.

05

문제는 HPV에 치료약이 딱히 없다는 것. 자연적으로 치료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예방하는 수밖에 없다.

06

HPV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면 일이 커진다. 전 세계 가입기 여성(15~44세)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유방암에 이어 2위를 기록한다. 지금도 2분에 한 명씩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고, 우리나라에선 매년 11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07

성관계를 시작했다면 1년에 한 번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젊으면 병 없단 말, 네 물론 미안한 말이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백신을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성관계를 시작하는 연령이라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의 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SOLUTION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송승욱 로앤산부인과 강남점 원장이
알려주는 자궁경부암 예방법

01

백신으로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자궁경부암이다. ‘예방주사’로 암을 막는다는데 뭘 망설이는가?

02

HPV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 미리 접종할 것을 권한다. 성경험 유무, 결혼 여부, 출산 여부는 상관 없다.

03

성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자궁경부 세포검사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04

동시에 만나는 연인의 숫자는 적을수록 좋다. 사랑을 나누는 상대가 많다면, HPV에 감염된 남성을 만날 확률도 높아지는 법. 단 성관계 횟수와 이 병은 무관하다고 하니 젊은 그대여, (가급적 한 사람과) 마음껏 사랑하라.

05

백해무익하다는 술과 담배가 자궁경부암까지 불러올 줄이야. 끼니를 거르고 술잔과 담배를 가까이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내게만 들리는 건가? HPV가 날 향해 달려오는 소리가.

06

남자들도 HPV에 걸린다. 남자들이 걸리면 여성에게 옮길 수 있고, 남성 또한 항문암 및 생식기 사마귀가 생길 수도 있다. 예방하려면 남자들도 백신주사를 맞아야 한다.

BREAST CANCER

20대 여성도 걸리는 유방암. 어디 가면 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냐고? 산부인과는 답을 알고 있다. 아래 리스트를 참고할 것!

01

유방암을 앓았던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

L. 가족력은 유방암 발병 원인 중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 가족력부터 확인한 뒤, 있다면 1년에 한 번 검진은 필수.

02

유두에서 피가 나온다.

L. 유두에서 거무스름한 피고름이 나온다면 반드시 산부인과에 가야 한다. 유방암 초기 증상을 의심할 수 있다. 색깔 맑은 물이 나오더라도 병원에 갈 것. 정상적인 증상이 아니다. 끔찍대지 말고 5분만 검사받는 데 할애하면 OK.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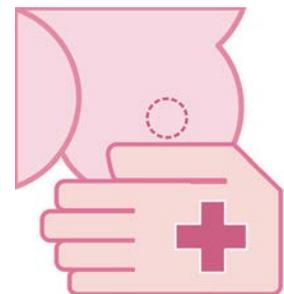
내 가슴을 내가 왜 만져? 자가 검진은 남의 일

L. 팔을 든 채로 가슴에 원 그리듯, 겨드랑이까지 만지면서 멍울을 확인하자. 월경이 끝난 뒤나 샤워할 때 습관적으로 봐야 한다.

04

아무런 증상이 없다.

L. 유방암은 어떤 징후나 통증이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가입기 여성이라면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





THE PILL

먹으면 몸에 안 좋을 것 같고, 안 먹으면 임신이 걱정되고, 내 몸에 딱 맞는 경구 피임약이 궁금하다면 확인해야 할 Q&A.



경구 피임약을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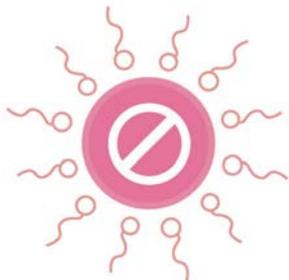
오래 먹으면 임신이 안 된다는 편견이 있는데요. 복용을 멈추면 임신 가능한 상태로 대부분 돌아갑니다. 단 연령이 높아지면 임신 가능성이 줄어들어서, 약보다는 나이 등 다른 이유 때문에 임신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지금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병력이 없다면 복용으로 인한 유방암 발생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 복용 전 두 가지를 꼭 체크하세요. 자궁이 튼튼한가? 자궁에 문제는 없나? 월경 주기를 조정하려고 복용하면, 주기가 꼭꼭 맞아 떨어지니까 “몸이 건강해졌다”고 오해할 수 있죠. 정작 자궁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낼 때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병원에서 몸을 확인하고, 복용 기간을 처방받으세요.



피임약은 다 똑같아요?



약 브랜드의 수 만큼 피임약도 다양하고 다르죠. 약마다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과 ‘프로게스테론(황체호르몬)’의 배합 비율이 조금씩 달라요. 짧은 기간 피임하려면 약국에서 사도 되지만, 월경 주기 조절 등 치료 목적이라면 반드시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해요.



“안 아프니까 관찰을 줄
알았다면 땃츠노노~

여성질환은 건강할
때부터 확실히 관리해야
큰 병 안 된다.”



CHECKUP

산부인과에서 받을 수 있는
염증 검사들

01 질염

안 보여서 몰랐지만 질 안은 ‘산성’이다(물론 보였어도 몰랐을 것이다). 성관계를 자주 갖거나, 소중한 부분을 비누로 북북 씻어낸다면 질은 염기성으로 바뀌고 만다. 이때 세균이 번식하면서 질염이 생긴다. 누렇게나 져빛 분비물이 나오고 비린내가 심하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특히 성 접촉이 많을 경우, 골반염이나 자궁내막염을 유발하는 질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02 골반염

모든 질염이 골반염으로 번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통해 걸린 질염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세균이 자궁을 통해 위로 올라가면서 골반염을 일으킬 수 있다. 맹장을 의심할 만큼 골반과 아랫배에 통증이 있다. 월경양이 갑자기 늘거나 발열·오한이 생기며, 질 분비물이 늘어난다면 이를 의심할 것. 혈액검사나 초음파 검사로 확인 가능하다.

03 방광염

아랫배가 저릿저릿하고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거나 아프다면? 소변도 자주 마렵다면 방광염 검사를 받는 게 좋다. 산부인과에서 소변검사로 알 수 있다.

THE MONTHLY FLOW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마법의 날. 생리량과 주기, 통증만 확인해도 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병원으로 갈 것. 의사 선생님은 답을 알고 계시다.

01

생리량이 갑자기 많아진다면

- 생리가 일주일 이상 계속된다.
- 1~2시간마다 위생용품을 흠뻑 적신다.
- 생리 기간 피곤하고, 숨이 차다.

↳ 산부인과에서 철분 수치를 검사해 보자. ‘빈혈’이 나온다면 내 몸에 무리가 될 만큼 과다하게 생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괜찮다고 넘어가는 여성들이 많지만,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증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02

생리통이 심하다면

- 진통제 네 알을 먹어도 통증이 안 가신다.
- 골반이 저릿저릿하고 아랫배가 무거워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다.
- 가만히 누워 있어도 너무 아파서 데굴데굴 구른다.

↳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 카페인 복용, 인스턴트 음식 섭취가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자궁내막증과 자궁근종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

03

생리가 똑 끊긴다면

- 50일 이상 월경이 없거나, 끝난지 20일도 못 되어 또다시 시작한다.
- 월경 주기를 따로 적지 않을 만큼 불규칙하다.
- 여드름이 생기거나 갑자기 살이 찌고, 털이 많아진다.

↳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잠을 잘 못 자면 월경과 월경 사이의 간격이 길어질 수 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위 증상이 나타나면 생리 불순과 다낭성난소증후군 여부를 병원에서 확인하자. 그대로 두면 난임과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Focus :

과자 워페어 6 : 콜 오브 당분

CALL OF DANGBOON

일명 과자전쟁이라 불리는 과자전이, '2015년 서울과자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6회를 맞이했다. 지난 10일 잠실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과자전쟁(쟁)은 커진 규모만큼 치열했다. 악천후와 북새통 속에서 수색 작업을 펼친 작전대가 단내 나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과자들의 회고를 담았다.

Intern __ 위지영 hi_wiy@univ.me

Photo reporter __ 배수민 최진영 학생리포터 jinyoung4340@hanmail.net



1



3

너무 예뻐서 장식품이나길래, 위장에 성공할 줄 알고 방심해

수제 과자 장인들의 열정이 한땀 한땀 깃든, 시선을 강탈하는 과자들이 조준경에 포착되었다. 그들은 “이거 장식품 아니에요?”, “장난감 같다”라는 말을 들 때마다 가슴을 쓸어 내렸던 심경을 털어냈다. 그러나 “꽃 장식도 먹어도 돼요?”, “파란색은 무슨 맛이예요?”부터는 더 이상 방어할 수 없었다고 고개를 저었다.

1. 인디어케이프
공방. 주문제작.
blog.naver.com/endear14

2. 프롤비
오프라인 매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역로 6-6.
blog.naver.com/mj1110

3. 디어블랙크
슈가크래프트 공방, 클래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240-3 101호.
sugarcraft.kr



1. 깔롱카롱&쇼콜라 플리마켓 위주로 참가, instagram @calon_choco
 2. 플레이데론 오프라인 매장 :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49-13, www.clairdelune.kr

가을 탄다는 말이 정말 ‘불에 타버린다’는 뜻... 인기의 화력이 엄청나

초반에 초콜릿과 에클레어가 많이 당한 것은 계절적 원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초콜릿은 예로부터 ‘사랑의 묘약’이고 가을은 외로움의 계절이지 않느냐”, “에클레어도 천고마비의 계절답게 통통한 조랑말 같은 모습이지 않느냐”고 열변을 토하는 그들에게서, 전 초전부터 얼마나 화끈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1. 바이재제
 오프라인 매장: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05-45번지 1층.
 blog.naver.com/wodms172
 2. 유니토키코
 공방, 주문제작, 클래스,
 www.yoonatocake.com
 3. 잇미
 공방, 주문제작, 클래스,
 www.eatme.kr
 4. the달다
 공방, 주문제작, 클래스,
 www.thedalda.co.kr

역시 내가 너무 귀여운 탓이구나, 라고 생각하니 마음 편해져

캐릭터 과자들의 반격은 위력적이었다. 가히 ‘무자비한 심장 폭행’이었다. 장인들의 정확한 취향 저격과 두말할 것 없는 달콤함은 광역 도발을 일으켰다. ‘차마 입안으로 넣을 수 없을 정도’의 귀여움이 확인되자 전쟁의 치열함은 더욱 격화되었다. 그들은 ‘예쁘면 다냐?’라는 질문 앞에 말없이 백기를 들었던 종전의 순간을 수줍게 고백했다.

말로만 과자 ‘전쟁’이라 들었는데, 이 정도일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 작전대

우린 이 작전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했다. 그만큼 평일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기대와 절실함도 알고 있었다. 이 회고록을 읽는 당신의 입안에 침이 고일 것 또한 예상하고 있다. 제법 찬바람이 분다. 목도리와 지갑을 챙겨라. 포근하고 달콤한 계절의 맛을 구하러 갈 때가 왔다.



Weekly Style:



오버사이즈 청재킷과 체크 스커트는 귀여움 불멸 공식
#팜므뮤즈 #5만원대
@김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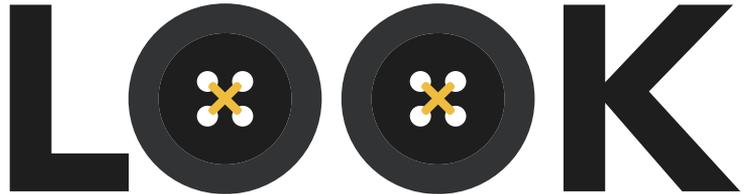


빈티지한 느낌이 살아 있는 연청의 매력이란
#어썬피스 #5만원대
@성진

다재다능 청재킷

캐주얼룩부터 시크룩까지 소화해내는 청재킷. 계절기엔 반스매 위에, 쌀쌀한 날엔 니트 위에 입을 수 있으니, 변덕스러운 가을에 딱 맞는 다재다능 아이템이라 말할 수 있겠다.

Guest Editor 스타일쉐어 윤진 yoon@styleshare.kr



StyleShare



청재킷과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는 스트라이프 티셔츠
#92volt #4만원대
@최지운



조금 색다른 크림색도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
#아노드머핀 #4만원대
@아노드머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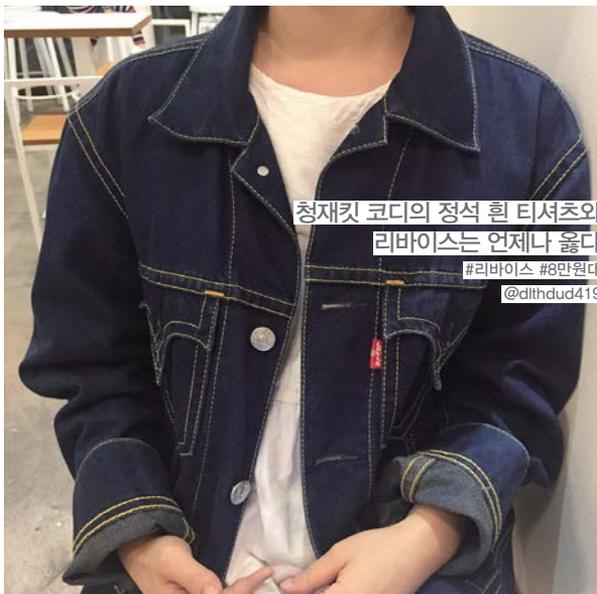


거친 느낌의 코팅 청재킷은
밝은 룩과 함께 부드럽게 연출
#오마이갯 #4만원대
@피티지

시험격과 후 쇼핑은 여기서.
옷만 사람반 스타일쉐어 플라마켓이 열린다!

일시장소
10.25 일요일 @DDP 알림2관

STYLESHARE
SUNDAY
FLEAMARKET
2015



청재킷 코디의 정석 흰 티셔츠와
리바이스는 언제나 옳다
#리바이스 #8만원대
@dlthdud419

강남 1위 박코치어학원(영어회화부분)



무작정 해외 나간다고 영어가 될까?

준비되지 않은 어학연수는 돈지랄!
준비되지 않은 워홀은 진정한 노예 생활을
맞볼것이다!

박코치 국내어학연수?

- ✓ 국내에서!
- ✓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 ✓ 6개월만에 어학연수 2년의 효과!

대한민국에서 박코치어학원 보다
영어회화(듣고, 말하기) 능통자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는 영어학원을 찾습니다.

사례금
10,000,000원 (일천만원)

제보시 반드시 사례하겠습니다.
문의 1577-7432

1. 박코치어학원과 같이 1,000건 이상의 Before & After (6개월 이상의 변화과정) 영상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박코치어학원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허락한 훈련생의 Before & After를 상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2. 최초 제보자에 한함.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보 받습니다.)



'대표님'이 된 스무 살이 있다.
 연지출판사 민희진(전남대 미술학 15)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 물려받은 거냐고?
 책 보면서 혼자 만들었던단.
 광주의 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내심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다.
 "고생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죠."
 거창한 건 없었지만 그 말이 진짜였다.
 '그냥 한번 도전해본' 그녀의 출판사는
 어떻게든 되어가고 있었다.
 연지출판사는 생지 6개월 만에
 10권의 책을 펴냈다.

책으로 바꿔줄게

너의 이야기

연지출판사 대표 민희진

친오빠가 쓴 책을 직접 내기 위해서 출판사를 차렸다고 들었어요. 네. 오빠는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오빠가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글쓰기 소재 365'라는 책을 썼는데, 찾아간 모든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오빠의 작업이 아까워 아예 제가 출판사를 차리겠다고 결심했죠. 그때부터 '인 출판사 만들기'에 관한 책을 사서 공부했고 혼자서 출판사를 시작했어요.

하고 싶은 게 많은 스무 살인데, 학교 다니면서 출판사 만드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수능 끝나자마자 출판사를 준비했고, 대학 입학할 때였던 올 3월에 첫 책을 냈거든요. OT와 MT 그리고 학과 생활과 동아리에 참여하기도 벅찼는데 출판사 일까지 갈

이 하러나 혼자 운 적도 많았어요. 그만둘까도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첫 책을 만드는 몇 개월 사이에 새 원고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마다 책을 만들었고, 하다보니 어느새 10권째네요. 계획하진 않았는데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죠.

'연지출판사의 '연지'는 무슨 뜻이에요? 연필과 지우개. 책 만드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잖아요.

"당신의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우리에게 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닌 꿈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라는 출판사 소개가 인상 깊었어요. 이 말 자체가 연지출판사의 모든 것이예요. 대형 출판사들은 이익





MINHEEJIN

을 먼저 찾았어요. 저희 출판사는 이익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책을 만들어요. 처음엔 오빠를 위해 시작했는데,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꿈을 이뤄주는 과정이 좋아요. 대학 생활만 했더라면 못 만났을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실패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아요.

아이들을 위한 글쓰기 책, 소설, 시집, 동화까지. 원고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예요? 작가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요. 하지만 제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원고는 거절해요. 『배꼽마당 아이들』은 작가가 손자에게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쓴 책인데요. 원고를 봤을 때,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대표님의 페이스북에서 '망할 것 같은데 해보는 거'라는 댓글을 봤어요. 정말 괜찮아요? 진짜 망하면 어떡해요? 아직 젊으니까 망해도 배울 점이 있고, 해본다는 사실 자체가 큰 교훈이잖아요. 정말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엄마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괜찮아. 그냥 한번 해봐.” 망하는 거 자체는 두렵지 않아요. 물론 안 망하면 좋지요. 그래도 젊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무엇을 시작할 때 ‘불안전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도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결과가 잘 나올까?’ 하는. 저도 항상 불안전해요. 출판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막상 부딪쳐보니 책 속 얘기와는 달랐어요. 그런데 하다보면 쌓이는 것 같아요. 처음 실수를 하면 다음엔 더 잘할 거 아니예요? 물론 책 냈는데 안 팔리면 어쩌나 늘 불안하긴 하지만, 한번만 들어서 내보는 거죠. 이 책이 안 팔리면 또 다른 책이 잘 팔릴 테고, 감도 더 늘어날 테니까.

출판사를 시작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강해졌어요. 이제 잘 안 울어요. 처음엔 ‘나도 스무 살이고 대학생의 로망을 누릴 수 있는데 출판사 일 때문에 못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익숙해지고 또 능숙해졌어요. 내가 벌인 일이니 수습도 내가 한다는 마음으로 매일 버텼죠.

출판사를 차리거나 책을 쓰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냥 해봐(웃음)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라고 되묻는다면요? 이렇게 말할래요. “나 같은 애도 했잖아. 타고난 거 아니야. 그냥 하다보니까 된 거야.” 저도 사실 확실하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부족하고 늘 불안하지만, 일단 지른 뒤 하다보면 나아지는 건 확실해요.

연지출판사의 미래는? 페이스북에 단 댓글처럼 정말 망할 거 같아요? 망할 것 같으면 책이 하나씩 들어와요. 망하지 않을 만큼만 가늘고 길게 가고 있어요. 졸업할 때쯤엔 책을 100권 정도 내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북카페를 열어서 ‘연지출판사 코너’도 따로 만들고 싶어요. 『대학내일』에 인터뷰가 실리면 원고도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해해.

좋아하는 일을 잘한다는 것

“벌렸어요~ 때려야죠! 아아아아~!” 교태로운 사우팅으로 그라운드 열기를 전해주는 이 남자.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까지 하는 정말 부러운 사람이다. 중계가 없는 날, 목동 SBS 사옥에서 박문성 위원을 만나 축구와 인생에 대해 물었다. 13년차 베테랑 해설위원답게 논리정연하게 답하는 그의 말은 버릴 게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축구를 전혀 모르는 당신(a.k.a 축알못)이 읽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을 인터뷰.

견고한 4백 라인,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52

매번 선수들을 인터뷰하다가, 이렇게 인터뷰이가 된 소감이 어떤가?

사실 인터뷰를 당하는 입장보단,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인터뷰이는 민낯을 보여줘야 하잖아. 웬지 모르게 부끄럽다.

이왕 보여줄 만났 확실하게 보여주길 바란다. 대중이 아는 당신의 모든 커리어는 '축구'와 관련돼 있다. 일을 하기 전 학생 때는 어떤 사람이었나?

고등학교 때는 가수를 꿈꿨고, 운동을 즐기긴 했지만 축구를 마니악한 수준으로 좋아하진 않았다. 그러다 점수 맞춰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고민하며 살기보단,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하는 평범한 청춘의 삶을 살았지.

축구 전문지 『베스트일레븐』에서 기자 생활을 하며 커리어를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생소한 '축구 기자'를 첫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4학년이 되고 뭐 해 먹고살지 고민을 하다가, 문득 '기자가 되면 괜찮을 것 같아'란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기자 선배들을 찾아다녔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시대가 변하고 있다. 그냥 기자 말고 앞에 ○○이 붙는 기자의 시대가 올 것이다"였다. 확실한 자기 카테고리 가 있는 전문가의 시대를 예측했던 거지. 그 후 기자 아카데미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학원으로 전화가 한 통 왔다. 『베스트일레븐』에서 기사를 뽑는다고 학생을 한 명 추천해달라는데 원장님이 나를 부르셨다. 지금 당장 면접 보러 가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날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말이야. 전화해서 내가 옷을 어떻게 입고 있어서 오늘은 못 가겠다, 라고 하니 "우리는 당신과 같은 인재를 원한다. 슬리퍼와 반바지를 입고 세상을 활보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을!"이라고 하더군.(웃음) 그래서 그 길로 면접 보고 바로 출근하게 된 거다.

지금 하고 있는 해설은 기자 생활을 하다 본인이 강력하게 희망해서 하게 된 건가?

지금은 '해설위원'이라고 하면 하나의 직업군처럼 느껴지지만, 예전엔 축구를 했거나 잘 아는 사람이 방송이 잡히면 단타로 하는 개념이었다. 지금처럼 '내가 이 분야에 도전해보아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아니었던 거지. 근데 운이 좋았던 게 2002 월드컵이 열리면서 축구 중계나 축구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그때침 내가 축구 잡지에서 글을 쓰고 있으니까, 방송국에서 섭외 연락이 왔다. 해설을 한번 해보면 어떨겠느냐고. 글도 좋지만 말로도 축구를 얘기하면 내가 하는 일에 더 깊이가 생길거란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해설에 발을 내디디게 된 거다.

방송을 오랫동안 하면서 알게 된 '해설(말)의 맛'이 분명 있을 것 같다.

글이 느리지만 울림이 강하다고 한다면, 말은 굉장히 빠르다. 말을 내뱉었을 때 파급력도 강하고, 그래서 무섭고 조심스럽다. 주위 담을 수가 없잖아. 글은 썼다가 아니다 싶으면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되지만 말은 하고 나면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무섭기도 한데 또 그만큼의 재미도 있다.

말로 상황을 전달해야 하는 만큼 전달력도 중요하다. 발음, 발성 같은 아나운서적인 역량은 따로 공부를 하는지?

볼펜 물고 발음 연습하는,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건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대화할 때 중요한 건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해"라는 말이 꼭 발성이 좋고 똑 부러지게 표준어를 써야 감정이 전달되는 건 아니지 않나. 중요한 건 진심이지. 해설도 마찬가지로.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 내가 이것을 충분히 즐기고 있느냐, 내가 이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뱉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말은 기술이 아니다. 마음이다.



빌드업 후 전진 패스, 골을 위한 물밑 작업

당신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즐겁지 않게 된다. 취미로 남겨둬야 인생이 행복해진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 사회가 그런 이야기를 마치 정설처럼 이야기하는 건 좋아하는 일을 먹고사는 문제와 일치시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좋아해도 그것을 일로 하다보면 지겹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백배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 건 초등학교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이다.

「대학내일」 대표님이 자주 던지시는 질문이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좋아하는 건 '에너지'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 근데 좋아한다는 건 자체가 능력이 되거나 구체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진 않는다. 이 에너지를 동력 삼아 '실제적인 일'로 만들어낸 게 잘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선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막연히 좋아하는 것만 좇으려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아하는 건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일 뿐이다.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는 사실만으로 축구 해설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축구를 좋아하고 그것을 업으로 삼고 싶다면 실제 액션을 취해야지. 축구 기자든, 심판이든, 지도자든, 선수든 준비를 해서 직접 부딪쳐봐야 한다.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게 바로 잘하는 것이다.

해설계에서 흔히 않은 '비 선수 출신'임에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나?

선수 경험이 있다는 건 해설을 하는 데 있어 아주 좋은 경험적 자산이다.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필수 요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비 선수'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선과 줄을 긋는—어느 대학, 어느 지역 출신인지 따지는—문화가 은연중에 녹아 있는 것이다. 실력만 있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 다만 내가 선수로서의 경험적 자산이 없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하는 건 사실이다. 공부도 많이 하고 선수를 만나서 얘기도 듣고 실제로 축구도 자주 해야지. 내가 선수 경험이 없다는 건 불편한 것일 뿐이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불가능한 요소라고는 생각해보는 적 없다.

얼마 전 손흥민 선수가 득점한 경기를 영국 현지에서 중계하지 않았다. 골 넣었을 당시의 느낌이 궁금하다.

골은 내가 안 넣고 (손)흥민이가 넣었는데...(웃음)

아... 내 말은 골이 터졌을 때의 벅찬 감동을 묻은 거다.

월드컵 현지 중계도 3번이나 갔었고, 다른 큰 경기들도 많이 해봤지만 이번엔 정말 특별했다. 축구 중가 영국 한가운데에서 우리 선수가 골을 넣었다는 자체로 기쁘기도 했지만 그다음에 더 감동적이었다. 주위를 보니 1만 명이 넘는 관중이 우리 중계진을 보고 기립해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고. 그 광경 자체가 굉장히 소름 끼쳤다. 살면서 언제 외국인들한테 이런 박수를 받아보겠는가. 물론 중계진한테 친 박수가 아니



※ 출처 박문성 위원 인스타그램 @mspark13

라, 한국과 손흥민에 대한 리스펙트를 우리에게 보낸 것이겠지만 현장에서 받은 감동은 엄청났다. 그날 경기에 못 나간 (이)창용이도 그 장면을 보고 소름이 짝 돋았다고 하더라.

이번엔 안티 팬 관련 질문을 해보겠다. 포어체킹, 조강백, 솔로 드리블 등. 존재하지 않는 말을 자주 쓴다는 이유로 많은 댓글러들이 당신을 저격한다. 이 점에 대해선 억울한 부분이 없는지?

내가 1년에 150경기 정도 중계를 한다. 그러다보니 같은 상황을 두고도 새로운 표현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가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 실제로 있는 축구 용어들이다. 일반 팬들은 잘 몰라도 현장에서는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다. BBC 중계만 봐도 '조강백'이란 말이 자주 나온다. 근데 팬들 입장에선 본인이 잘 모르면, 들어본 적이 없으면, 엉터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물론 중계를 할 때 가장 좋은 건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끔씩 새롭게 말하고 싶어 저런 표현을 쓰는 거지. 방송인데 내가 설마 없는 말을 지어서 하겠나?(웃음)

평소 본인 칼럼의 댓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은 체크하는가?

신경 쓰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아예 안 본다. 박지성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선수가 보여줘야 하는 곳은 경기장이고, 보여줘야 할 것은 축구 실력이라고. 마찬가지로. 어떤 댓글에 대꾸해 글이나 말로 상대해서는 이길 수 없을뿐더러 이길 필요도 없다. 기자든, 해설가든, 캐스터든, 선수든 대중의 피드백을 받는 직업이라면 자신의 영역에서 그 일을 잘하는 게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회심의 노 마크 찬스, 비록 골이 아닐지라도

어떤 직업이든 일을 잘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공부해야 한다. 해설위원이라면 그 정도가 더 심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하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선 축구를 많이 봐야지. BBC나 스카이스포츠 같은 외국 분석 프로그램이 정말 좋다. 그런 걸 보며 다양한 시각을 공부한다. 선수를 만나서 살아 있는 얘기를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토트넘이랑 펠리스 경기 끝나고 (박지성이랑 밥 먹는데 "아싸~ 그걸 왜 그렇게 얘기했어?" 이러더라고. 나는 "뭐가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대꾸하며 티격태격 했지.(웃음) 이런 얘기야말로 정말 살아 있는 현장의 얘기이다. 이론을 읽고, 영상을 보고, 선수들의 얘기를 듣는 것. 이 세 가지가 전부 중요하다.

만약 다시 태어나서 선수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수로 살고 보고 싶은가? 박문성의 다·태·은?(다시 태어난다면 ○○)

박지성. 인성, 실력, 팀을 만들어가는 능력. 내가 실제로 봤던 국내 선수 중 최고다. 지금 우리가 프리미어리그를 안방에서 편하게 보면서 "맨유가, 첼시가, 맨시티가, 아스날이"라며 친숙하게 느끼지 않나. 이런 문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박지성이다. 누가 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뒤를 따라가는 건 쉽다. 처음으로 길을 닦는 게 어려운 거지. 박지성은 그 길을 개척한 선수이다.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다. 당신이 생각하는 축구와 인생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기고 지는 게 뚜렷하다는 것. 물론 무승부가 있지만 승부를 위한 과정일 뿐이다. 시즌이 끝나면 우승하는 팀과 강등팀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어린 친구한테 축구를 가르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잘 지는 법'을 말해주는 거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탓하며 부정하게 된다. 그러면서 세상과 나를 고립시키게 되지. 내가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다. '최선을 다 하면 모든 게 이뤄질 거야. 거짓말이다.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호날두, 메시처럼 됐겠지. 노력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분명히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시도하는 것도 용기이지만, 실패했을 때 꿈을 접는 것도 용기이다.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다.'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축구 관련 일을 하며 살고 싶은가?

당분간은 축구 생각밖에 없다. 나중에 나이 들면 시골 내려가서 집 짓고 닭 기르며 살고 싶은 꿈은 있다. 내가 딸만 셋인데, 나중에 사위나 남자친구 데리고 오면 닭 삶아서 같이 먹어야지. 정말 즐거울 것 같다!



'최선을 다 하면 모든 게 이뤄질 거야. 거짓말이다.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호날두, 메시처럼 됐겠지. 노력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분명히 있다.'



Think:

Freelancer 김세희 프리랜서 sseessay@gmail.com Illustrator 전하은



56

이별은 가을 탓, 겨울엔 사랑을!

올 여름 찾아온 연애의 끝은 가을방학의 '잘 있지 말아요'란 노래 덕에 건넜다. 떠나는 뒷 모습에 대고 "마흔 되기 전에 탈모나 와라. 치질 걸려서 화장실 갈 때마다 X꼬에 불나라"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찜질한 이별이었다. 그래놓고도 새벽만 찾아오면 전화를 해냈고, 집 앞에 무작정 찾아가거나 불러내서 떼를 쓰기도 했다. 친구들한테는 또 어찌나 민폐였는지 "심장이... 정말 터져버릴 것만 같

다"며 중2병 말기 환자처럼 굴었다. 잔뜩 취한 어느 한밤중엔 동네 한복판에서 "OOO 개 자식이 돌아와"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이웃 할아버지한테 혼나기도 했다. 연남동 진상녀로 기억될 총체적 흑역사였다.

"웃어줄 수 없어 편해질 수 없어. 그대도 잘 있지 말아요. 한 뼘 숲이었던 이 내 맘을 사막으로 만든."

지난 연인에게 반복해가며 잘 지내지 말아달라 부탁하는 노랫말이 좋았다. 화룡점정은

“찬 바람이 불면 같이 떨어요”하는 마지막 부분이다. 이젠 사실 탈모 외라, 치질 걸러라에 예쁘게 멜로디를 입힌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아름다운 진상이랄까. 그런데 이 악담의 가사들이 이상하리만큼 위로가 되었다. 우연히 읽게된 가을방학의 멤버 정비비씨의 에세이집 한 구절도 큰 힘이 되었다.

“연애는 ‘뽕센 연애’와 ‘존나 뽕센 연애’로 나뉜다. 존나 뽕센 연애는 한쪽 혹은 양방이 신체,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두 사람의 인종이나 쓰는 언어가 다르거나, 원거리 연애거나 하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있는 연애다. 그리고 뽕센 연애는 그 외의 모든 연애에 해당된다.”

뽕센 연애를 하고 싶으니 뽕센 이별을 한 건 당연한 거였다. 그렇게 진상짓들을 정당화하며 마음을 정화시켰다. 생각해보니 사실 이 뽕센 힘들이 그의 부재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별 기념 폭음 뒤 간만에 찾은 단골 해장국집 맛이 변해 화가 났다. 가만히 울고만 있는데도 눈물만큼 땀이 흐르는 후덥지근한 날씨도 짜증 났다. 잘 그려지지 않는 내 미래가 답답했다. 그러나 모든 까닭은 그에게로 향했다.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모든 게 괜찮아지지 않을까? 헛된 마음에 계속 매달렸다. 여느 때처럼 툭툭 부은 눈으로 ‘헤어진 남자 친구 붙잡는 법’을 검색하던 중이었다. 재회 전문 컨설팅회사의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찾아보니 상상보다 그 시장 규모가 큰 편이었다. 꽤 많은 수의 회사들이 진지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당장 포털에 등록된 사이트만 해도 30개쯤 되었는데 대부분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이별한 사람은 일차 전화 상담을 통해 이별의 원인이나 교제 기간 등을 밝히며 컨설팅을 의뢰한다. 그러면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 재회 컨설턴트’가 재회 과정과 전략을 설계해주었다. 전화 상담의 평균 가격은 7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고, 이후 전문 컨설팅에 들어가게 되면 30만원 내외에서 가격이 책정되는 듯했다.

가격에 놀라서 한 번, 홈페이지 글들을 관찰하며 또 한 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심지어 그 내용이 너무 어설퍼다. 이별한 이들은 맞춤법을 너무 자주 틀려 그 전문성이 의심 되는 컨설턴트에게 혼나고 있었다. “니가 그러니까 헤어지지”가 주된 논조였다. 왜 설계해준 대로 하지 않고 벌써 가서 붙잡느냐며 타박을 쳤다. 특히 속상했던 건 “제가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처절하게 반성하는 의뢰

인들이었다. 가끔 정신 차린 이들이 환불을 요구하긴 했지만, FAQ엔 조건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재회에 실패해도 환불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형편없는 컨설팅 없이도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건 바로 만고 불변의 진리,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면 된다. 너무 뻘한 얘기에 실망하기 전,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떨어지는 낙엽만큼 수많은 커플이 가을에 헤어진다. 한 기사에 인용된 연구 조사에 따르면, 가을에 찾아오는 계절성 우울증(Seasonal affective disorder)이 가을철 이별 증가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 이별은 일조량이 떨어지면서, 멜라토닌이 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이다. 가을 때문에 헤어진 것뿐인데 애꿎은 자기탓을 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작스런 이별을 겪고 나면 평소와 다르게 이타적인 사람이 되곤 한다. 엄마한테까지 자밖에 모른다고 쌍욕을 치며 먹던 나도 내뺏을 했다. 이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살살이 훑으며, 어느 지점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떠났는지 따져봤다. ‘그때 그렇게 화내는 게 아니었는데’ 하며 모든 이별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기 시작한다. ‘다 내가 이해심이 부족한 탓이었어’라거나 ‘그 사람은 바쁘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참아볼걸’ 하는 식으로 말이다.

떨어지는 낙엽만큼 수많은 커플이 가을에 헤어진다. 한 기사에 인용된 연구 조사에 따르면 가을에 찾아오는 계절성 우울증이 가을철 이별 증가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 이별은 일조량이 떨어지면서, 멜라토닌이 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이다. 가을 때문에 헤어진 것뿐인데 애꿎은 자기탓을 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덜 이타적인 보통의 우리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 모든 술자리의 전 남친, 전 여친 내려티브가 결국은 ‘떠나간 그 새끼 나쁜 놈, 나쁜 년’으로 끝나는 걸 보면 안다. 다시 말해 자기 탓과 반성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다. 대신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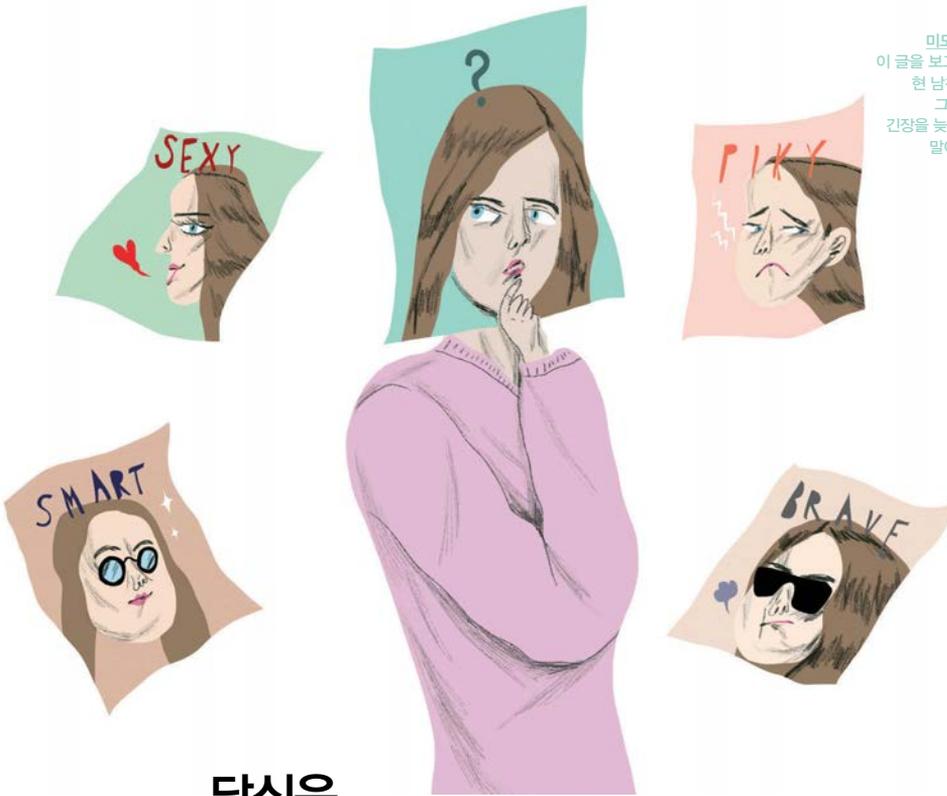
금 더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 마음 아파가며 배운 교훈을 그냥 낭비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다음 연애가, 새로운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 해준 게 아깝다면, 새로운 사람에게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면 되는 일이다.

그러니 가을에 헤어진 이들이여, 가슴 아픈 자기 탓은 멈추고 가을 탓을 하자. 두 번만 따라 물어보길

권한다. “젠장, 가을 녀석! 너 때문에 헤어져버렸네~” 그리고 ‘어쩌겠어, 가을 때문인데’ 하는 최대한 명량한 태도로 마음속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다. 가을이 가야 겨울이 오듯, 떠나간 사람을 보내야만 새로운 사랑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요즘 나는 이별의 계절인 가을이 끝나고, 사랑의 계절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게 기쁘다.

물론 겨울이 사랑의 계절이란 건 내 멋대로 하는 말이고, 겨울엔 일조량이 더 떨어진다는 자연현상은 까맣게 잊을 예정이다. (이런 모질하게 만나준 전 남친 닮은 참시 고마운 마음도 든다.) 모든 시작에는 또 지겨울 만큼 힘든 끝이 있는 거 아니냐고? 끝이 있으니 시작도 있다는 정신승리의 자세로 맞서면 된다. 다만 새로운 사랑에서는 좀 더 잘 해볼 수 있다고 스스로 격려하며, 힘을 내어 또 다시 사랑을 하자.





당신은 몇 사람인가요

늘 궁금했었다. 한 사람에겐 몇 개의 자아가 있을까. 내 경우는 이렇다. 내가 해야 할 자아는 크게 9개. 먼저 엄마, 아빠, 언니 앞에서의 내가 전부 다르다. 엄마에겐 조금은 투쟁적인 딸(다른 말로는 고집스러운 딸), 아빠에겐 자기 앞길 잘 개척해가는 믿음직한 딸, 언니에겐 친구 같은 동생이다. 친구에게도 돌로 나뉜다. 마음을 나누는 친구 앞에선 오타쿠인 나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덜 친한 친구에겐 한없이 따뜻한 요정 자아를 발현한다. 이것 말고도 4개나 더 있다. 외사람을 대할 때의 공손한 나, 손님 대접을 받을 때의 시니컬한 나, 약자 앞에서 정의로운 척



20대라면 누구나, 칼럼 기고나 문예는 ahrajo@univ.me

+ 데 이 사람은 나를 해석하는 방식이 전 사람과 크게 달랐다. 먼저 책을 좋아하는 나를 그는 '애늬은이'라 불렀다. 요즘 내가 고전을 열심히 읽어서이기도 하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애늬은이'가 확실하다는 거다. 또 그는 '외사람'에 대한 매뉴얼 = '공손'이라는 나만의 공식을 어색해했다. 편하게, 내 마음대로 자신을 대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가까이 빗장을 걸어냈다. 자연스러운 나를 그 앞에 꺼내 놓았다. 전 남친을 대하던 나와 상당히 다른, '신사임당'이 아닌 '진다르크' 같은 내가 나타났다. 나이도 전 남친보다 지금 남친이 1살 더 많은데, 훨씬 더 격의 없이 그를 대하고 있다.

물론 그 누구에도 끌려가고 싶지 않다. 상대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는 건 지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먼저 내가 행동을 취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가 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마음 편하다. 하지만 옛날엔 그게 쉬웠다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가족들에게 몰라도 남 앞에서 함부로 나를 꺼내었다가 정말 함부로 대접 받을 것만 같아 조심스럽다. 심지어 두 다리 정도 건너면 웬만해선 다 아는 사이이지 않은가. 이전 '나쁜 이미지만 안 되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다. 어느새 내 자아가 이렇게 유연하고도 연약해졌다.

하는 허세 가득한 나,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의 연인으로서의 나다. 이 마지막 관계가 오늘 이 글을 쓰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

우선 6개월 만난 전 남자친구에게, 나는 밝지만 차분한 '신사임당' 같은 여자친구였다. 그 사람은 책을 가까이하는 나를 문학소녀라 부르기도 했고, 바쁜 자기를 잘 이해해준다면 이해심 가득한 여자친구라고도 했다. 이제껏 내가 알았던 나는 참을성과 배려가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말하니 나는 정말 그래야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의 몰이해 때문에 나는 한꺼번에 터지고 말았다. 그에게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한 것이다. 그때 난 헤어짐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과심해서가 아니었다. 그간 삭였던 감정들이 여러 감정들로 가지를 쳐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때그때 표현하지 않던 마음은, 끝내 나머지도 모를 마음이 됐다. 나를 연기하게 만드는 그가 불편했던 건 확실했다.

시간이 흘러 새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그런

그래서 필연적으로 나는 수많은 모순을 만들 어낸다. 이 사람 대할 때와 저 사람 대할 때의 태도 차이. 이쪽에게 하는 말과 저쪽에게 하는 말의 차이. 그 차이들을 일일이 마주하고 있다면 스스로 보기에도 극형 모순덩어리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다. 그게 내가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인 동시에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니까. 이런 나의 모순마저도 포용해줄 사람과 함께하면 된다고 믿게 됐다. 스스로도 이따금 견디기 어려운 모순이지만 차라리 모순을 모순이라 놀려줄 사람이 있다면, 나는 쑥스러운 마음으로 더 겸손해지려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겐 보상(?)으로 가장 나다운 순수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꽤 괜찮은 거래라 생각하는데. 내 순수함 정말 치명적인데!

Weekly Out Campus

2016
대학내일
신입사원
공개채용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LAB 3기

동부문화재단 제6회
행부 금융제안 공모전

글로벌 기업 JTI와 함께하는
커리어 멘토링 콘서트

LG드림채린저 7기
주니어멘토 모집

Gift

여러분께
독자 선물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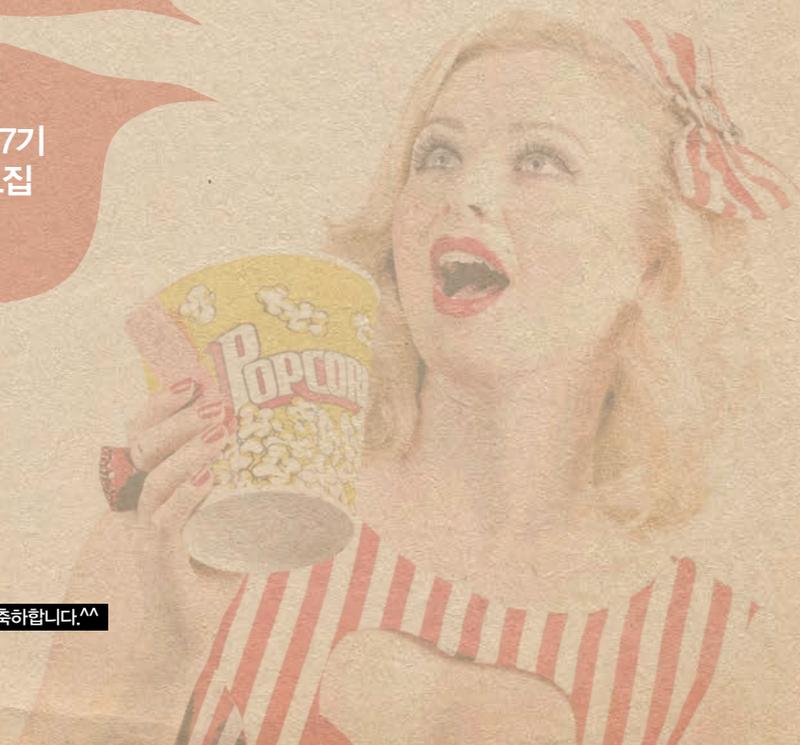
대학내일 지면에 대한 독자 의견을
받습니다. 대학내일의 다양하고
유익한 기사들을 읽어보신 후
readers@univ.me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름, 주소, 연락처 필수 기재). 지면에
대한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매주 1명을
뽑아 '글로시박스'를 드립니다.

글로시박스 전문 뷰티 MD들이 매월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여
새롭고 트렌디한 화장품 5개를 핑크박스에
담아 보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 16여개국
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글로시박스!
매월 구독료 1만 6,500원으로 4~5만원의
다양한 뷰티 아이템을 만나보세요! 이번 달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이 넘칠 수 있도록
가법지만 도도한 데일리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www.glossybox.co.kr



GLOSSY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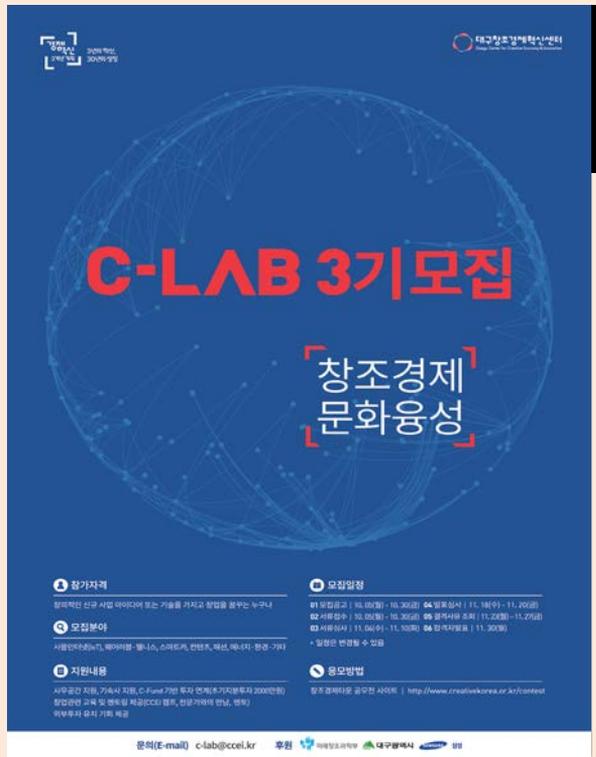
독자 선물 당첨자 발표 김우정(715) NO.754 아웃캠퍼스 지면 독자 의견 선정을 축하합니다.^^



Hot issue

대학생만의 특권!

Editor 김주리 jur@univ.me



C-LAB 3기 모집
[창조경제 문화융성]

참가자격
창의적인 신규 사업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꿈꾸는 누구나

모집분야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헬스, 스마트카, 핀테크, 콘텐츠, 패션, 에너지·환경, 기타

지원내용
사무공간 지원, 기숙사 지원, C-Fund 기반 투자 연계(초기 지원투자 2000만원)
창업관련 교육 및 멘토링 제공(CCDI 캠프, 전문가와의 만남, 멘토)
외부 투자유치 기회 제공

모집일정
01 신청접수 | 09.08(월) ~ 10.30(일) 04 발표심사 | 11.16(일) ~ 11.30(일)
02 서류심사 | 10.08(월) ~ 10.30(일) 05 합격사유 조회 | 11.23(월) ~ 11.29(일)
03 서류심사 | 11.06(일) ~ 11.30(일) 06 합격자발령 | 11.30(일)

응모방법
창조경제타운 공모전 사이트 | <http://www.creativekorea.or.kr/contest>

문의(E-mail) c-lab@cccl.kr 후원  대구광역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LAB 3기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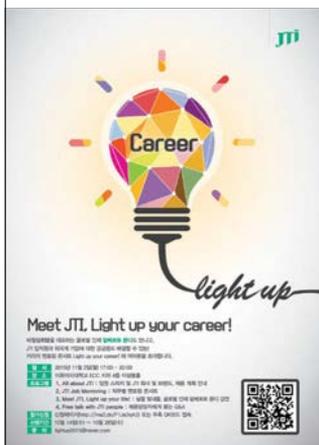
www.creativekorea.or.kr/contest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C-LAB 3기 스타트업을 모집해, 창조경제 문화 융성과 역량 있는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라 지원 내용이 엄청 나니까~ 창업을 꿈꾸고 있다면 꼭 놓치지 마. 응모 방법은 10월 30일 까지 창조경제타운 공모전 사이트에서 서류 접수를 하면 돼. 합격자 발표는 결격사유 조회와 심사를 통해 11월 30일에 발표된다고 하니 차분하게 기다리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참가자격 창의적인 신규 사업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꿈꾸는 누구나
모집분야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헬스, 스마트카, 콘텐츠, 패션, 에너지·환경, 기타
지원내용 사무공간 지원, 기숙사 지원, C-Fund 기반 투자 연계(초기 지원투자 2000만원), 창업 관련 교육 및 멘토링 제공(CCDI 캠프, 전문가와의 만남, 멘토), 외부 투자유치 기회 제공



글로벌 기업 JTI
Meet JTI,
Light up your career!



글로벌 기업 JTI에서 커리어 멘토링 콘서트를 열어, 한국을 사랑하는 글로벌 인재 (비정상회담)의 알베르토가 외국계 회사에서의 생존 전략을 강의하고, JTI 임직원과 외국계 기업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해! 오감을 자극할 다채로운 핑거푸드까지 있으니 꼭 참여해봐! 자세한 내용은 신청 페이지 참고.

신청 기간 10월 14일~10월 28일
일시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17:00~20:00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ECC 지하 4층 이삼봉홀

대학내일
2016 신입사원 공개 채용
Corp.univ.me/recruit



대학내일에서 내공 터지는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어. 대학내일에서 찾는 내공은 높은 학점, 높은 어학 점수, 많은 자격증이 아니야! 스펙처럼 수치로 표현되진 않지만,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과 노력을 통해 쌓은 자신만의 역량을 우대해. 자신만의 내공으로 뚝뚝 뚫린 사람이라면 꼭 지원해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지원자격 2016년 1월부터 출근 가능한 누구나
전형절차 서류심사 - 필기시험/작무인성면접 - 합숙실무면접 - 최종 채용
접수기간 10월 23일 23:59분까지

HR

기업명	직무	홈페이지	지원마감	기타
HACKERS	해커스 교육그룹 공개 채용	www.hackers.com	~10. 19 24:00	기획/학사/경영지원/연구/웹
Hyundai Card Capital Commercial	2015 신입 인재 모집	www.careerhyundai.com	~10. 23 오전 10시	1년 계약직 근무 후 내부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UNIQLO	2016년 유니클로 신입사원(UMC) 모집	recruit.uniqlo.co.kr	~10. 30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기 졸업자

공모전

주최	공모전명	분야	지원마감	상금
세기 P&C	제1회 펙택스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10.21	대상 300만원, 입사 지원 시 가산점
경기도 생활체육회, 경희대학교	2015 스포츠 아이디어 오디션	스포츠 창업 기획	~10.25	대상 5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콘텐츠 창작 공모전	UCC, 웹툰, 단편영화, 연극 대본, 포스터, 영상광고	~10.31	총 상금 5,280만원
듀오	제1회 듀오 청춘사랑 UCC 공모전	UCC	~11.15	대상 500만원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사업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	아이디어	~11.16	대상 상금 300만원 및 T-money 200만원
설빙	맛있는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11.30	대상 500만원
동부문화재단, 동부금융네트워크, CFA Societ Korea	제6회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	아이디어	~12.31	글로벌 금융 탐방, 입상자 전원 동부그룹 입사·인턴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최우수상 500만원
삼성전자	삼성 WInnovation 액세서리 아이디어 공모전 Project	아이디어	~1.20	총 상금 6,200만원

대외활동

주최	활동명	활동기간	지원마감	혜택
현대자동차	H-Marketing Master Class 2기	4개월	~10. 23 10:00	우수자 해외 탐방, 입사 지원 시 우대
STARTUPBANK	스뱅 원정대 1기	1개월	~10. 31	한 달간 아시아 탐방 활동 전액 지원
AK몰	MVP 서포터즈 17기	4개월	~11. 1	강의 프로그램 무료 제공, 개인/팀 활동비, 공채 지원 시 우대
(주)LG	LG드림챌린저 7기 주니어멘토	1개월	~11. 9	활동비, 전문 멘토링 트레이닝, (주)LG 인증 수료증, 기념품 등
잡코리아	글로벌 프리랜터 12기	-	~11. 5 16:00	탐방 지원금 팀당 6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청년 인재 + 지역 우수기업 희망이음 프로젝트	-	6월~10월 상시 참여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전국 15개 시·도지사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및 15개 시·도 테크노파크 원장상

강연/이벤트

주최	행사명	홈페이지	일정	기타
한국대학생포럼,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으로 떠나는 2015 희망열차	www.univforum.kr	~ 10. 20	10.24 ~ 10.25일 정차인, 기자, 교수, 기업가와 함께 부산으로!
한겨레신문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청춘살롱	www.asiafutureforum.org	10. 29 14:00	사전 등록 시 요청하시는 분에 한해 출석 인증서가 배부됩니다
대학연합 문화 마케팅 스터디 모임 컬처유니버	제13회 세미나 '악수'	blog.naver.com/cu_seminar	11. 14	영화, 공연, 역사, 범죄, 심리의 소재제로 이루어진 세미나. "우리가 알던 악역은 진짜 악역이었을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고대 불교 조각 대전	www.buddhist2015.com	~11. 15	불상, 간다라에서 서라벌까지
그린카	THE SUV 스포티지 5시간 무료 시승 카셰어링 이벤트	cafe.naver.com/outcampus/384618	~11. 18	5시간 무료 시승 제공(인 1회 한정)
J Life School & 마케팅 사관학교	1분 영어 스피치 특강	onoffmix.com/event/55193	~11. 27	이민호 선생님과 함께 5가지 키워드로 배우는 나만의 1분 스피치

albamon

알바 취업포털 네이버 조회수 1위

총 4,417,107건 (PC+Mobile 2015년 8월 기준)



Univ Tomorrow :



회사 대학내일 채용이 궁. 금. 해!

남아, 그 내공 그렇게 쓰지 마오 대학내일 신입사원 지원할 때 새먹자

이렇게 놀아서 뭐하나 싶죠? 이런 게 어디 쓸모가 있을까 싶죠?
근데 다 쓸데가 있더라구요. 재밌어서 하다보니 어느새 잘하게 됐고,
그 내공으로 대학내일 입사 성공! 일을 할 때도 내공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대학내일 내공찌는 선배들의 입사 성공 스토리,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더덕 폭발 오타쿠,
좋아요정 부르는
콘텐츠 기획자로 활약중

SNS 콘텐츠 기획 및 에디팅
이연제 매니저 (미디어영상학 전공)

나는 H기업과 J기업 관련 SNS 채널 운영 및 콘텐츠 기획을 담당하고 있어요. 매주 어떤 콘텐츠로
좋아요정을 소환할지 기획부터 업로드까지 다양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입사 성공 비결, 나만의 내공은 덕후력이다. 궁금하게 생기면 알 때까지 찾아보고 질릴 때까지 집
착하는 덕후력, 실시간 가십거리, 파생 유머, 신조어 등 최신 트렌드는 놓치지 않는 덕후력 등 얼마
전까지 이렇게 오타쿠 같아서 어디에 써먹나 싶었던 덕후력이 이젠 저를 대표하게 됐고 대학내일
에서 일하게 만들어줬어요.

내공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좋아하던 것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된 것 같아요. god를 좋아해서
사진을 꾸미려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독학했고, 친구와 놀려고 가입한 영상 학회에서 배운
영상이 재밌어서 프리미어, 에프터이펙트를 배우기도 했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
다보니 어느새 글도 쓰고 디자인&영상 툴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업무 시 내공의 도움 정도는 놀면서 봐둔 SNS 트렌드와 드림들을 페이스북용 짧
은 콘텐츠를 기획할 때 활용하고 있어요. 덕질로 배운 디자인 기술 덕에 디자이너와 콘텐
츠 제작 관련 협업을 할 때 의견 나누기가 더 수월하고요, 영상 제작 능력을 살려 짧은
영상 편집은 제가 직접하기도 해요.

나는 매주 발간되는 주간지 「대학내일」을 만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문화팀 학생리포터들과 함께
문화 관련 기사를 쓰고 있어요.

대학내일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대학생 때 과방에 있던 잡지를 보고 처음 알게 됐어요. 대학교에
서 국사학을 전공했지만 평소에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대학내일에 입사하면
제가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내 힘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다는 희망 두 가지를 안고
대학내일에 입사하게 됐죠.

입사 성공 비결, 나만의 내공은 말장난이다. 어릴 때부터 말장난을 좋아했어요. 국어책 표지
를 '북어'로, 체육책 표지를 '체육북음'으로 만들었던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는 진지
하게 고민을 털어놓는데 머릿속으로 그가 사용한 단어와 비슷한 발음의 글자를 생각한 적
도 많아요. 시도 때도 없이 말장난 하고 싶다는 욕심이 저만의 내공으로 자리잡게 만든
것 같아요.

실제 업무 시 내공의 도움 정도는 잡지에서 제목은 특히 중요하거든요. 제목은 짧고 간결하
고 재밌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말장난의 경험이 요긴하게 쓰여요. 그 외에도 글을 쓰는
데 말장난은 감칠맛 나는 양념이 될 수 있어서, 업무에 내공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죠.

말장난 잘하던
국사학도,
대학내일 에디터 되다



유스 미디어 콘텐츠 에디팅
기명균 에디터 (국사학 전공)

2016 대학내일 신입사원 공개채용 Q&A

Q [지원자격] 기졸업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YES! 2016년 2월 졸업예정자는 물론이고 기졸업자도 지원 가능해! 1월 입사가가능자라면 누구나 환영~!

Q [지원서 작성] 경력기술서와 포트폴리오 제출은 필수인가요?

YES! 지원분야에 상관 없이 경력기술서와 포트폴리오 제출은 필수어!

Q [지원서 작성] 경력기술서에는 근무 경력을 쓰는건가요?

NO! 타 회사에서 일한 경험은 자소서 항목 중 근무경력란에 작성하면 돼. 경력기술서에는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자신만의 경험을 적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SNS 마케팅 직무에 지원했다면, 개인 블로그를 운영했던 경험이나 자신이 폐북에 올렸던 콘텐츠 중 큰 호응을 얻었던 콘텐츠 등등을 어필하면 된다는 말씀~

Q [지원서 작성] 포트폴리오에는 경력기술 항목에 작성한 내용만 적어야 하나요?

NO! 포트폴리오에는 기본적으로 경력기술 시 작성했던 내용과 연관된 자료들을 넣어주면 돼. 그 외에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 중 포트폴리오로 보여줄만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해도 좋아~!



2016 대학내일 신입사원 공개채용

지원자격 2016년 1월부터 출근 가능한 누구나

접수기간 2015년 10월 23일 (금) 23:59까지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corp.univ.me/recruit

전형절차 서류심사 → 필기시험/직무인성면접

→ 합숙실무면접 → 최종채용

더 자세한 채용관련 궁금증은
홈페이지 내 Recruit 1:1 게시판을 참고할 것!



비전공자도 괜찮아
남다른 센스로
디자이너 꿈 이루다

SNS 콘텐츠 디자이너
유호정 매니저 (영어영문학 전공)

나는 A그룹 헤어 브랜드의 SNS 채널과 K그룹 야구구단 페이스북에 올라갈 웹 콘텐츠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입사 성공 비결. 나만의 내공은 디자인적 센스다. 제 전공은 영어영문학과예요. 실제로 디자인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비결은 저만의 남다른 디자인적 센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공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디자인에 관한 지식과 센스를 꾸준히 키워온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나모 웹에디터와 포토샵을 독학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디자이너가 되고 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취미로 시작한 홈페이지 만들기가 디자인의 기본인 레이아웃 그리드를 잡는 눈을 키워줬더라고요. 그리고 대외활동을 하면서 웹진 같은 걸 제작할 때도 포토샵을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은 부족했지만, 나만의 센스를 가지고 발벗고 나서서 만들곤 했는데 그게 디자이너가 갖춰야 하는 디자인적 센스를 키우는 데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 직무를 꿈꾸는 지원자들에게 한마디 능동적인 사람이었으면 해요. 주어진 내용만 전달받아 디자인하기보다 내용을 받고 스스로 스토리를 재구성하여 똑같은 내용도 다르게 표현하려는 노력과 시도를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S그룹 관련 SNS의 콘텐츠 디자인을 맡고 있어요. 이 일을 담당하기 전에는 프로모션 행사 시 필요한 제작물이나 온라인 홍보 제작물 디자인을 담당했었어요.

대학내일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우연히 대학내일 채용 공고를 보게 됐어요. 대학내일은 잡지만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유스 마케팅, 유스 미디어, 리서치까지 대학생을 타겟으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활동적인걸 좋아하는 저에게 회사 내에서 디자인만 하는 업무보다는 외부로 일도 나가고 여러 사람을 만나며 하루하루 역동적으로 일하는 대학내일 프로모션 디자인 직무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원하게 됐죠.

입사 성공 비결. 나만의 내공은 유연함이다.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전달하되 조직 내에서 여러 사람과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어필했고 그게 입사에 성공 할 수 있었던 저만의 강점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내공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어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여학연수, 여행, 봉사 등 전공과 다른 일들을 많이 해봤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하다 보니 어려운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방면으로 경험했던 것들은 디자인을 하는데 많은 영감을 줬요.

놀러대기
좋아하던 디자이너의
독특한 입사비결



캠페인/프로모션 디자이너
손유리 사원 (사각정보디자인 전공)

Out Campus:

Contents

언어편

Episode 01

지역편

Episode 02

생활편

Episode 03

사건사고편

Episode 04

노동편

Episode 05

자료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whic.mofa.go.kr
시드니 워킹홀리데이 서포팅센터
www.hojudream.com

사진제공 및 도움
워홀 프렌즈 박중언, 성요셉



01

01
시티잡, 호텔 서빙

02
와인 공부 중



02



호주 워킹홀리데이 안전 바이블

호주 워킹홀리데이 협정 20주년. 가장 높은 최저임금과 신청인원 무제한이라는 매력에 끌려 작년 2만 4146명의 대한민국 청년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이하 '워홀러')가 되어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 '호주 워킹홀리데이 안전 바이블'은 청춘의 꿈을 지켜주기 위한 기본 필수 상식을 뽑아 5주간 연재된다. 모르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알면 아주 쉽게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인생정보라' 할 수 있겠다.

노동편 01

호주 워킹홀리데이, 안전한 구직이란?

하나 안전한 구직이란?

호주의 최저임금은 17.29 호주달러, 한화로 1만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모든 워홀러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건 아니다. 이번 기획의 첫 번째 순서에서 밝혔듯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언어구사 능력이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농사, 청소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곤 최저임금을 받기 힘들고, 취업 사기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자신의 위치를 잘 판단하고 구직할 뒤 지속적으로 언어구사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챙겨야 할 것은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안전한 임금지급을 받기 위한 텍스파일번호(TFN)만들기다. 워킹홀리데이는 비자 제도일 뿐, 이 제도 안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더불어, 워킹홀리데이는 청춘에게 새로운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본질이지 국내에서의 취업을 보장하는 스펙이 아님을 기억하자.

둘 일자리 종류 및 안전 상식

근무 형태별

풀타임 잡(Full Time Job): 연방정부 기준, 한 주에 38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경우, 주로 공장 등에서 풀타임 직원을 고용한다.

워홀러 안전 tip

고기 공장은 농장과 달리 날씨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업환경은 안전하지만 영어를 배우기는 적절하지 않다. 주요 업무 중 가족들을 도살하는 파트는 비위가 약할 경우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고기 공장들은 www.yellowpages.com.au 에서 'Meat Processing' 지역별 검색 가능.

파트타임 잡(Part Time Job): 도심(시티)주변에서 거주하며 어학원을 다니는 이들이 선호하는 형태, 주로 2곳 이상에서 일하는 워홀러들이 많다.

워홀러 안전 tip

시티잡은 미리 일해 본 사람과의 인맥을 통해 검증된 업체로 구하는 것이 좋다. 근무시간, 장소, 급여(시간당 급여, cash, before tax), 급여지급 시기(주급, 2주마다, 월급), 트레이닝 기간 유무와 급여 지급 기준, 초기 2주 급여를 보증금(deposit)으로 묶어두는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급여지급일에는 확인 후, 딜레이가 있을 경우 가급적 해당 일자리를 바로 그만두는 것이 좋다. 개인 사업자 번호(ABN)를 요청하는 업주들은 주의하고 되도록 피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를 이용하여 회사 세금을 전가하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캐주얼 잡(Casual Job): 비정규 일용직, 주로 농장일이 많다.

워홀러 안전 tip

농작물 수확 기회와 농장 위치, 숙박, 교통편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 농작물 수확 안내서를 참고. www.jobsearch.gov.au/harvestrail

직무 / 직군별

호텔, 리조트 레스토랑의 웨이터/웨이트리스: 손님 의 요구 사항에 대해 유창하게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어학 능력이 요구된다. 매주 근무 시간이 바뀌는 캐주얼 잡의 형태로 주당 근무시간은 대략 15~25시간 정도.

한인 식당 및 현지인 레스토랑 웨이터/웨이트리스: 한인 레스토랑은 영어를 요구하지 않지만, 현지인 레스토랑의 경우, 다양한 의사표현이 가능한 어학 능력이 필요하다. 한인 레스토랑은 최저임금 이하의 현찰 임금을 주는 cash job의 형태가 많다.

워홀러 안전 tip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악덕 한인 및 현지인 업체들을 주의하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초반 임금을 보증금 또는 트레이닝 기간 명분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이유를 들며 임금 삭감 및 체불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일자리를 얻었을 때 무책임하게 결근을 하거나 연락 두절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인 업체 - 우리 나라 워홀러 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현찰 지급의 경우, 한 달 단위 지급 조건은 경계해야 한다.

테이크아웃 전문점: 손님 대부분이 현지인이기 때문에 주문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학 능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생존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주방보조 혹은 설거지(Kitchen hands) 담당: 한인 레스토랑은 영어를 요구하지 않지만, 현지인 레스토랑의 경우, 다양한 의사표현이 가능한 어학 능력이 필요하다. 호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구할 수 있는 일이지만 대신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편이다.

셋 임금 체불 해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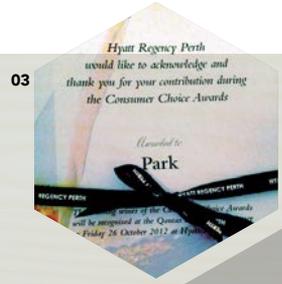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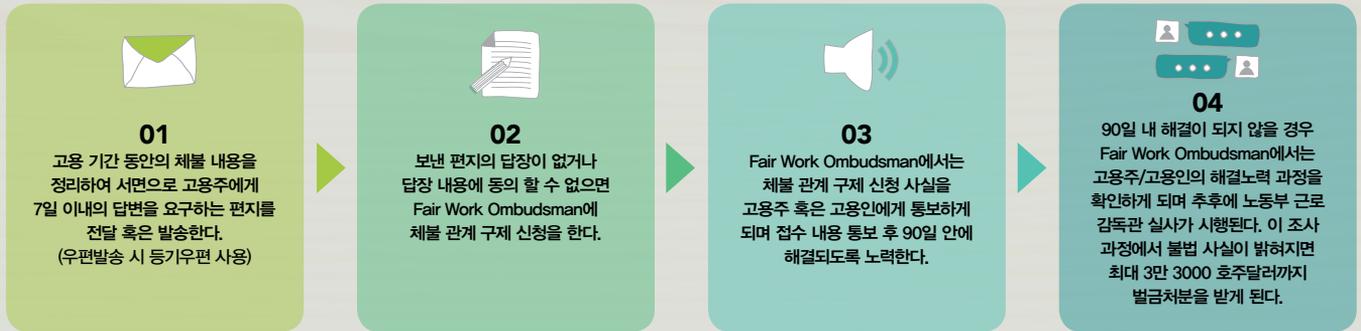
구제 신청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료

고용자 이름, 회사 이름, 주소, 근무 기록(pay slip, 개인 일지) 회사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www.search.asic.gov.au/gns001.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청회사에서 일했을 경우는 원청 회사 정보, 일한 곳 주소, 같이 일한 동료 정보 등이 필요하다.

임금 체불 해결 단계

1단계 본인 스스로 고용주와 교섭으로 해결 → **2단계** 노동조합을 통한 해결 *관련 업종 노동조합 가입 회원인 경우 노동조합에 찾아가 체불 신고와 관련 자료 제출로 간단하게 해결 가능 → **3단계** Fair Work Ombudsman을 통한 해결 (호주정부 부서인 노동분쟁조정기관 Fair Work Ombudsman 웹사이트 www.fwo.gov.au 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또는 지역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체불을 신고하고 해결하는 방법. 전화는 13 13 94(한국어 통역 13 14 50). 본인이 계산한 체불 금액을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요구한 후 1주일 후에도 답장이 없거나 답장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다.)

실사를 진행하는 Fair Work Ombudsman를 통한 해결 처리 절차



03
하얏트 호텔 와인 평가단 참여 기념

04
시드니 레스토랑 떠날 때 선물로 받은 케이크



interview '2년 동안 6개 직업' 박중언 워홀러의 생생 조언

1. '몇 월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기간별 목표가 필요하다. 나는 세컨비자(Specified Worker로 최소한 3개월 이상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 한해 비자 유효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제도)까지 생각하고 2년 워홀을 계획하였고, 이를 4단계로 나누어 해당 단계마다 대략적인 방향을 정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할 때도 회의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
2. 자격증은 직업이 된다. 호주에는 다양한 자격증이 존재하며, 자격증의 소지 여부가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판가름 한다. 이러한 정보를 알고 직업 전선에 뛰어들다면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전문적인 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3. 구직 시 키워드는 영어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resume를 가지고 직접 발로 뚫는다. 물론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지만, 스스로가 우물 안으로 들어가는 개구리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지원자들이 '핫'한 그곳에 지원을 하다 보니 경쟁력이 없는 resume는 그냥 사람이 머물 뿐이다. 나를 최대한 어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더불어 나는 온라인 지원이 구직에 있어서 얼마나 허무맹랑한 행동인지 뒤늦게 깨달았다. 발로 뛰고 매니저 얼굴을 보며 전해주자. 나는 미드 등을 통해 외운 수많은 워트있는 조크들을 암기하고 다녔다. 면접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나를 더욱 센스있는 지원자로 만들어 주었다.
4.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경우, 받은 명함의 회사를 꼼꼼하게 조사해 신뢰할 만한 곳인지 확인한다.
5. 세컨비자는 꼭 내 힘으로 돈으로 사는 것은 불행이다. 나는 세컨비자를 따기 위해 농장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
6. 취업을 전제로 스폰서 비자(457임시취업비자가 보통)를 제안받은 경우에, 당신의 업무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감은 뒤로 하고 일단 회사가 믿을 만한 곳이고 당신을 진정으로 고용할 역량이 되는 곳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자.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스폰서 비자가 '노예비자'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 나 역시 비자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한 경험이 있다.

박중언
건국대 경영
2012년 3월 ~ 2014년
2월까지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박중언 워홀러는 청스 - 키친핸드 - 농장(밀두라, 빅토리아, 배언즈데일, 빅토리아) - 레스토랑 - 케이터링 & 호텔(퍼스, 서호주) - 케이터링 & 레스토랑(시드니, 퍼스) 등 6개의 직장을 거쳤다. 그는 퍼스에서 일할 당시 레스토랑 교육의 일환으로 주 단위로 농장을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받아 이 경험을 바탕으로 관타스&하얏트 호텔에서 주 관하는 컨슈머 와인 평가단에 총 56개의 와인을 사용하는 훌륭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2015
 자라섬 8
막걸리
FESTIVAL

JARASUM MAKGEOLLI FESTIVAL 2015

10.29 - 11.1 11:00 ~ 22:00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 일대

주최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막걸리협회
Korean Makgeolli Association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후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후원 :  가 평 군

자라섬!
 막걸리로 떠나는
 가을 추억 여행!

막걸리가든

- 대형 돔텐트(3,000~) 내 막걸리 주점 운영

공연프로그램

- 노라조, 울랄라세션, 코요테 등 40개 팀

전시프로그램

- 2015 우리술 품평회 및 해외 주류품평회 인상작 등 전시,
 찾아가는 양조장 및 전통주 갤러리 등 소개

체험프로그램

- 팔도막걸리 시음, 막걸리 빚기, 소주 내리기,
 외국인이 빚은 막걸리 시음 콘테스트 등



아직도 TRAVEL CARE

가입 안하고 출국하니?

“ 해외에서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려고 ”

TRAVEL CARE, 그게 뭔데?

대학 동기인 A와 B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하여 호주 카불처 딸기농장에 도착했다. 새로운 나라와 도전에 대한 설렘도 잠시, 도착한 첫 주말 A는 뜻밖에 사고로 발목을 삐었다. B는 해변에서 썬 태닝을 즐기다 깜빡 잠이 들어 등에 화상을 입었다.

A와 B는 다행히 출국 전 워킹홀리데이보험을 가입했기에 관망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A는 수중에 현금이 없으니 병원비 걱정이 앞섰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까 하는 마음에 발목이 아프지만 참을만하다며 병원을 찾지 않았다. 통증이 견디기 힘들 때 즈음, 어렵게 병원을 찾아 어눌한 영어와 몸짓발짓으로 증상을 설명했더니 인대손상이 있다며 진료비2천불을 청구 받았다.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기도 손을 벌리기도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청해야 했다.

B는 스토리가 달랐다. 트래블케어(travel care)가 포함된 상품을 가입한 B는 출국 전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현재 증상과 위치를 설명했다. 몇 시간 후 근접한 병원에 예약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고 예약된 시간에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진료를 받은 후 B는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귀가해 수중에 현금이 충분치 않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트래블케어 서비스 기업에서 지불 보증을 통해 고객을 대신해 진료비를 처리하는 현지 지급 서비스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해외여행(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손해에 대해 의료지원 등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특별 서비스 혜택을 '트래블케어(travel care)'라고 한다.

동시에 해외에서 예기치 못한 부상과 질병을 겪었지만 A와 B의 경험담은 상반됐다.

A가 가입한 일반 워킹홀리데이보험 (또는 여행자보험 및 유학생보험)은 해외의 높은 의료비를 본인이 먼저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후보상 청구를 위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국내 보험사로 신청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일반 여행자보험으로 되겠어?

반면, 트래블케어가 결합된 여행자보험 서비스 상품을 가입한 B는 병원예약 및 의료비 수납대행(현지지불), 의료 모니터링, 긴급의료 전화통역과 같은 해외 의료지원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요청할 수 있다. 또, 현지생활 정보가 필요하거나 사고 발생으로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낯선 국가에서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모를 때에도 365일 24시간 믿고 전화할 수 있는 곳이 생긴 셈이다.

출국 전, 인터넷을 통해 철저히 사전조사를 하고 트래블케어를 준비한 B는 인터뷰를 통해 "Rainy day를 위해 우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해가 쨍쨍하지만 소나기가 왔을 때 남들보다 튼튼한 우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마음이 놓이는 거죠" 라고 전했다.

A는 "젊고 건강해서 한국에선 평소 병원 가는 일이 없었는데 해외에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아프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며 "집을 떠나 아프니까 서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

현지지불
(의료비 수납대행)



해외병원예약
입원수속



긴급의료통역
(전화통역)

난 어시스트카드한테
트래블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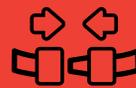
받는다~



수하물추적
현지생활정보
해외항공특송



의료모니터링
(24시 한국어
고객케어센터)



유해송환
지원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전화해

정규 유학생부터 교환학생, 어학연수생,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워홀러), 세계여행자 등 매년 한국을 떠나 세상을 향해 도전장을 내미는 대한민국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에게 출국 전 트래블케어 상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유학원이나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 해외여행(체류)을 준비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트래블케어 상품이 출국 준비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셀팩견적과 간편가입이 가능해 촉박하게 출국하는 이들도 쉽게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트래블케어를 제공하는 대표기업으로 알려진 어시스트카드는 해외에 머무르며 워킹홀리데이와 여행, 학업 등 출국목적 국가(미국/그외)에 따라 다양한 상품라인이 준비되어 있다.

어시스트카드는 해외긴급지원이 전문으로 응급 이·후송 및 분국송환, 항공지원, 수하물지원, 여권분실 등을 지원하는 특별한 서비스 패키지도 가입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어시스트카드 홈페이지(www.assistcard.co.kr)를 방문해 나에게 맞는 플랜을 확인해보자.



**인터넷사기
사이버캡으로
예방하세요!**

지금 경찰청 사이버캡 앱을 다운 받으세요!

- 1 상대방 계좌, 전화번호의 인터넷사기 이력 확인
- 2 내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되는 악성코드 차단
- 3 신종 사이버범죄 발생 시 경보 발령
- 4 '폴안티스파이엠(스파이엠 설치 방지 기능)'과 연계 가능

인터넷사기 예방을 위한 3대 예방수칙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경우
일단 주의하세요!



직거래나 안전결제 서비스
이용하세요!



경찰청 사이버캡 앱으로
사기이력 조회하세요!